

# Style Man

조선일보

SEPTEMBER 2012 vol.81



*front*  
**STORY**  
IT 기업을  
뒤흔든 세기의  
소송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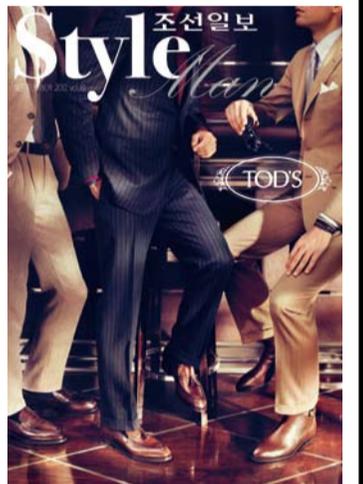
38



44



26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최고의 가죽 세공 기술을 보유한 이탈리아 브랜드 토즈의 2012 F/W 컬렉션이다. 토즈가 선보이는 새로운 모카신은 우아함, 스타일리시함 그리고 모던한 매력을 지녔다. 포멀하면서도 다양한 룩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가벼운 고무 밑창과 가죽으로 마무리한 굽은 정교함과 편안함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권한다. 문의 02-3438-6008

## Style 조선일보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mailto: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mailto: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kim@chosun.com](mailto:y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mailto: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mailto: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mailto:yjkwon@chosun.com)  
 이예진 [yejin.lee@chosun.com](mailto:yejin.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mailto: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mailto: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mailto:adjoons@chosun.com)  
 조통일 [cti@chosun.com](mailto:ct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mailto:mhleee@chosun.com)  
 분해·제판 | ING PROCESS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스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광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인 첫째 주 화요일에 배달됩니다. ※ 2·3·4·8·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10 **INSIGHT**

12 **SELECTION**

16 **IT 기업을 뒤흔든 세기의 소송들** 2011년 4월,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고유한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 6월에는 삼성 역시 애플이 자사의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소했고, 지난 8월 24일 미국 시장에서 패배했다. IT 기업의 근본부터 뒤흔드는 세기의 소송, 이제부터 시작이다.

18 **FACE OF WATCH** 시계를 선택하는 기준에 우선순위가 있을까? 브랜드의 인지도와 명성, 기능, 정확성, 소재, 가격 등 다양한 요소가 있었지만 의외로 시계의 얼굴, 다이얼이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20 **MATERIAL INFLUENCE** 한 시즌만 지나면 잊힐 패션 액세서리는 소모품일 뿐이다. 진짜 멋을 아는 남자라면, 단 하나라도 충분한, 평생을 지니며 매 순간을 추억할 수 있는 남자만의 주얼리가 필요하다.

22 **THE BEST TIME** 역사 깊은 워치메이커라면 브랜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컬렉션이 있기 마련이다. 오래도록 많은 남성들에게 사랑받아온, 꼭 기억해야 할 베스트 워치 컬렉션.

24 **TIE LOVER** 울가웬 타이 선택에 있어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풍부한 컬러, 화려한 프린트를 담은 타이가 이번 시즌 트렌드이기 때문. 매일 아침 습관처럼 타이를 매고 있다면 셔츠와 타이의 프린트 믹스 매치를 통해 스타일링에 재미를 더해볼 것.

26 **THE WAY HE WEARS** 하이넥 니트와 트렌치코트, 클래식함에 유행가느끼는 슈즈를 더하면 지금 가장 멋진 남자를 위한 아이템은 갖춘 것이다.

34 **삼페인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스키 여행 IN THE SNOW** 프렌치 삼페인 브랜드인 보브 클리코가 오감을 색다르게 충족시키는 특별한 피서를 제안한다.

35 **DARK ANGEL** 철조망과 피라미드 모티브, 강렬한 독수리의 발톱이 흑진주를 품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은 주얼리로 거듭났다. 진주의 대명사 타사키가 디자이너 미하라 아스히로와 조우해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유니크한 주얼리를 선보인다.

36 **DANDY CLASSICS** 정장 구두는 수트를 돋보이게 하고 남자의 옷차림을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품질 좋고 디자인이 클래식한 제품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38 **RENOVATION OR INNOVATION**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을 위해서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는 쓸모없어진 건축물이 수리를 통해 100% 새롭게 변신한 세계의 랜드마크들을 소개한다.

40 **SPACE MATTERS** 드러내지 않는 남자들의 로망. 여기, 그들을 위한 4개의 방이 있다. 때론 어린아이처럼, 때론 아카데미한 학자처럼, 또 때론 냉철한 스파셜리스트처럼. 오롯이 혼자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소유하라.

44 **언어의 미술사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미국적인 파리아이스 KEY WEST** 카리브 해를 따라 촘촘히 연결된 42개의 섬, 그 끝자락에 자리한 그림 같은 섬 키웨스트. 언어의 미술사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그 신비롭고 오묘한 파리아이스 키웨스트(Key West)를 향해 항해를 시작해보자.

46 **JUMPING YOUR SKIN** 흐트러진 얼굴 라인, 탄력 없는 피부, 눈에 띄는 잔주름은 여성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남자들이 선호하는 가벼운 질감에 즉각적인 효과와 지속력까지 갖춘, 오직 남성만을 위한 안티에이징 화장품.

## Jewel RING STATUS

잠시 잊었던 남자만의 용기와 과감함을 드러내는 제스처, 볼드 링 컬렉션.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와 블랙 골드가 조화로운 쿼츠 블랙 에디션 링 4백만원대 **부쉐론**. 실버 소재를 피라미드처럼 디자인하고 포인트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하라야시호 by 타사키 컬렉션 링 1백10만원 **타사키**. 작은 피라미드 형태의 독특한 모티브가 멋스러운 포인트 디자인 링 2백만원대 **부쉐론**. 십자가 모양이 돋보이는 링 70만원대 **가르니 by 블러쉬**. 여러 가지 밴드를 겹쳐서 레이어드한 듯한 링 2백30만원대 **타사키**. 산토스 100 위치에서 영감을 얻은 스크루 모티브의 볼드한 산토스 100 링 3백60만원대 **가르니**.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는 링 40만원대 **가르니 by 블러쉬**. 앤티크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링 가격 미정 **크롬하츠**. 중세풍의 십자가 문양을 재해석한 링 가격 미정 **크롬하츠**. 유니크한 해골 모티브가 돋보이는 링 40만원대 **가르니 by 블러쉬**. 에디터 **배미진**



프로그래드 영혼

## Fashion

### 테일러링의 손맛을 느끼다, 당신만을 위한 맞춤 슈트

남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원하는 이들이 늘면서 나만을 위한 '메이드투오더(made-to-order)' 서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신의 취향과 체형에 완벽하게 맞춘 단 하나의 슈트는 클래식 슈트 하우스의 장인 정신과 자부심의 결정체로 꼽히기에 의미를 더한다. 제네에서는 고객의 체형에 맞춰 기성복을 보완하는 '수 미주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4백50여 가지의 방대한 패브릭, 1백여 가지의 디자인과 디테일, 42 사이즈부터 준비한 다양한 사이즈 중에서 원하는 모든 디테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 매장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수 미주라 전담 어드바이저가 직접 방문하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슬림한 허리 라인, 높은 체스트, 날렵한 어깨선을 통해 모던 새빌로 슈트의 정수를 선사하는 던힐은 완제품을 받기 전에 피팅 체크를 할 수 있다. 톰 크루즈, 조지 클루니 등 할리우드 스타가 즐겨 입는다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맞춤복은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원하는 소재와 안감, 버튼 스타일은 물론이고 라벨 디자인과 주머니 위치, 바지 주름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옷 안쪽에는 이니셜이나 원하는 이름을 새긴 개인 라벨을 부착해 특별한 자부심을 충족시킨다. 랄프로렌은 브랜드 독점 원단인 2백20여 개의 슈트 패브릭과 1백30여 개의 셔츠 패브릭으로 특별함을 더한다. 손바느질로 부착한 길리외 버튼홀을 통해 정통 테일러링의 손맛을 느낄 수 있으며, 단추로는 고급 소재인 뿔, 진주, 상아지만 사용한다. 맞춤 슈트의 가격은 보통 4백만~6백만 원부터 시작하며, 주문에서 생선까지 8주 정도 소요된다. 에디터 **이예진**



던힐

제네

랄프로렌

브라운 컬러 세이빙 브러시 세트는 **아쿠아 디파르마**. 세이빙 스텐드의 면도기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 Beauty

### 남자, 그녀의 화장품을 훔치다

여성 코즈메틱 라인 중에도 남자가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 있다. 남자 화장품은 옴 브랜드에 서만 선택하기엔 폭이 좁은 것이 사실. 그들이 선호하는 가벼운 텍스처와 산뜻한 마무리감, 여기에 뛰어난 효과까지 갖춘 여성 화장품이 소개된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끈적하거나 번들거리는 화장품은 부적합하다. 그 때문에 가볍지만 촉촉함을 지닌 수분 아이터మ్은 늘 남성들에게 사랑받는 아이템. 촉촉한 젤 타입 크림인 **'클라린스 하이드라 퀴치 크림'**은 피부에 닿으면 물방울로 변하는 즉각적인 수분 공급 효과와 쿨링 효과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50ml 6만원), 병하 당단백질 추출물과 사막 식물 추출물을 함유해 24시간 뛰어난 보습 효과를 주는 **'키엘 울트라 페이스 크림'**은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은 물론 무향이라 향에 민감한 남성에게도 제격이다(50ml 3만9천원). 흡연, 음주, 야근 등의 각종 스트레스로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진 남성에게겐 노화되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집중 관리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추천한다.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실크로니이즈 드 리커버리 콤플렉스'**는 피부 손상을 개선하는 크로노록스™ 기술을 적용해 피부 탄력 저하, 건조, 칙칙함 등의 가시적인 노화 징후를 케어한다(50ml 15만5천원). 뛰어난 보습력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지닌 **'디올 캠크 토날 밀티 퍼펙션 에멀전'**은 일반 에멀전보다 가벼운 텍스처로 안티에이징 크림의 리치한 느낌을 부담스러워하는 남성에게 제격이다(80ml 13만원). 자외선 차단제의 필요성은 알지만 특유의 끈적임에 사용하기가 꺼려진다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페이스 로션을 눈여겨볼 것. **'비비 브라운 프로텍티브 페이스 로션 SPF 15'**는 산뜻한 오일 프리 로션으로 자외선과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캐머미일과 감초 추출물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킨다(50ml 6만원). **'베네프트 트리플 퍼포밍 페이스 에멀전 SPF 15 PA++'**는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감과 편안함을 더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3중 효과를 선사한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50.3ml 4만2천원). 에디터 **권유진**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Motor

### BMW 모터라드,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선보여

디자인과 성능, 안전성의 심박자를 두루 갖춘 모터사이클을 원하는 라이더들을 겨냥한 신형 제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BMW 모터라드의 신제품인 입문용 엔듀로 바이크 BMW F700GS와 전천후 온·오프로드 엔듀로 바이크인 BMW F800GS이다. 이 두 모델엔 모두 배기량 798cc 수랭식 병렬 4기통 엔진이 탑재됐다. BMW F700GS는 전 모델에 비해 4마력 높아진 최대 74마력(PS)과 최대 토크 7.85kg·m(7300rpm)를 자랑하고, BMW F800GS는 이전과 동일한 최대 84마력과 최대 토크 8.46kg·m(7500rpm)의 힘을 뿜어내지만 짧은 기어비 설정으로 주행할 때 역동성을 높였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이들 제품에는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차세대 잠금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이 기본으로 장착돼 있다. 디자인도 한층 더 세련돼 졌다는 평가다. 예전에 비해 더 부드러운 핸들링 기능을 갖췄다는 F700GS 모델은 앞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라인이 보다 역동적인 느낌을 자아내며, 앞바퀴의 트윈 디스크 브레이크와 블랙 고정 포크 등이 성숙하게 어우러지는 인상을 주도록 디자인됐다. 또 F800GS는 중급 엔듀로 바이크를 대표하는 모델답게 새부리 모양의 어퍼 머드 가드와 윈드 실드 등이 조화를 이루며 강인한 근육질 오프로드 캐릭터를 강조하게끔 고안됐다고. 가격은 F700GS가 1천4백20만원부터, F800GS는 1천7백만원부터. BMW 모터라드의 금융 서비스 '이자리이트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월 10만원대의 할부도 가능하다. 에디터 **고성연**



F800GS

F700GS

## Book

### 전 세계 호텔 라벨을 모은 여행광의 발자취를 녹이다

'여행의 미학'을 몸소 실천했던 '자유로운 영혼'이 애지중지하는 기쁨을 들고 세계를 누빈 자취가 이색적인 한 권의 책에 담겨 나왔다. 그 주인공은 루이비통 창업자의 손자인 가스통 L. 비통. 그는 트렁크만 제작한 게 아니라 파리, 라우 디자네이루, 도쿄 등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평생에 걸쳐 무려 3천 개의 호텔 라벨을 모은 독특한 수집가였다. 루이비통은 남미 출신의 작가 프란시스코 마테올리의 글 솜씨를 빌려 가스통의 발자취를 따라 전설적인 여행자와 그곳의 호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월드 투어를 발간했다(자비에 바랄 출판사). 방에 들여놓기도 힘들 만큼 트렁크를 주문했던 이집트 왕자의 에피소드에 얽힌 파리의 호텔 마라보 얘기, '싱기폴 슬링'이란 카페의 탄생 배경을 알려주는 래플즈 호텔 등 마치 20세기 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매력적인 여행사다. 가스통의 컬렉션에 들어 있는 1천 개의 호텔 라벨도 이 책에 공개됐다. 파리의 루브르 호텔을 4년간 자택처럼 이용하다 요즘이 밀려 자녀들에게 빛까지 남겨줬다가 나중에 '특별한 게스트로 추모받아 빛을 랑강받은 교차' 호텔 애호가 '중조부'를 둔 작가 자신의 추억담도 재미나다. 한정판(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버전)과 일반 버전(영어, 프랑스어 버전)이 있으며 루이비통 매장(www.louisvuitton.com)에서 판매한다. 에디터 **고성연**



루이비통의 여행서 <월드 투어>



브라운 코듀로이 재킷 3백만원대, 코듀로이 베스트 1백만원대, 체크 패턴의 코트 셔츠, 초콜릿 컬러 캐시미어 타이, 빈티지 무드의 포켓 스퀘어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네질도 제냐**.

깃털 장식이 맞스카프를 울 소재 페드로라 33만원 **롤스메인**.



브라운 컬러의 메탈 장식이 돋보이는 송아지 가죽 벨트 46만원 **Z제냐**.



근대적 1930이 베이직한 라인에 송아지 가죽 노마드 사인무스 백, 41x31.5cm, 가격 미정 **루이비통**.



고급스러운 악어가죽 질감을 표현한 송아지 가죽 인경 케이스 155만원 **캘리시 by 자스트릿 494 울드**.



유니크한 호피 무늬 블랙 안경 40만원대 **카렌워커 by 율티칼W**.

# for weekdays Selection

세련되고 품격 있는 비즈니스 룩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소재에 주목할 것. 부드러운 송아지가죽과 이그조틱한 악어가죽은 럭셔리한 감성을, 코듀로이·캐시미어·울 소재는 남성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드러낸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엔드러한 느낌이 물에는 카프스 링크가 7년 미정 **보타가 베네타**.

요제프 2세를 기념하기 위한 제왕으로 펜의 끝과 촉에 왕실의 문장이 장엄하게 새겨져 있다. 1천2백만원 **몽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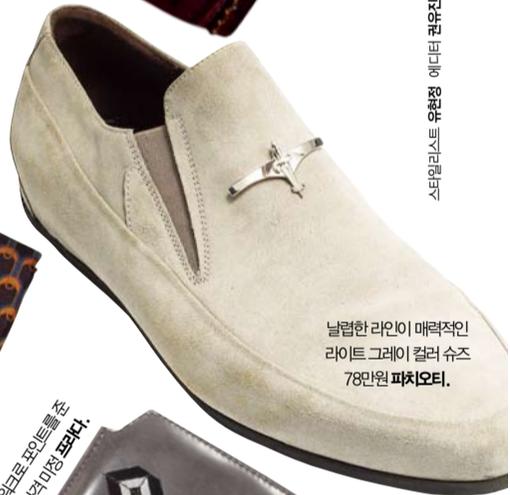
태슬 디테일이 돋보이는 송아지 가죽 레이스업 슈즈 90만원대 **구찌**.



로스 골드 인텍스와 악어가죽 패턴의 브라운 레더 스트랩이 고급스러운 제즈마스터 오토 크로노 H-21 위치 2백17만원 **해밀턴**.



스타일리스트 추천 **에디터 권유진**



날렵한 라인이 매력적인 라이트 그레이 컬러 슈즈 78만원 **파치오티**.



실제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듯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자랑하는 컴팩트 모형의 베오랩 5 스피커 33만원 3백만원대 **뱅앤올룹슨**.



데스크에서 사용하면 좋은 스피커, 아이패드 케이스, 거치대 등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베오 플레이 A3 도크 스피커 89만원 **뱅앤올룹슨**.



패턴과 컬러 배색이 세련된 실크 스카프 40만원대 **구찌**.

다이아몬드 가죽 패치워크로 포인트를 준 신제품으로 아이패드 케이스 가격 미정 **포터**.



- 구찌 1577-1921
- 몽블랑 02-3485-6627
- 포터 02-3218-5331
- 파치오티 02-545-8757
- 해밀턴 02-3149-9593
- 뱅앤올룹슨 02-518-1380
- 줄 스미스 02-3447-0278
- 루이비통 02-3432-1854
- 에르메네질도 제냐 02-2016-5325
- Z제냐 02-546-6287
- 자스트릿 494 울드 02-3449-4494
- 율티칼W 02-522-4343
- 보타가 베네타 02-515-2717



# IT 기업을 뒤흔든 세기의 소송들

2011년 4월,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고유한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 6월에는 삼성 역시 애플이 자사의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소했고, 지난 8월 24일 미국 시장에서 패배했다. 미국 본안 소송은 완전히 급이 다르다. 세계 최대 시장을 보유한 초강국 미국에서의 판결은 미국 자체뿐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IT 기업의 근본부터 뒤흔드는 세기의 소송, 이제부터 시작이다.

patent troll



지난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 지방 법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 1심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애플의 일방적인 승소로 결론이 나면서 2011년 4월, 애플의 고소로 시작된 세기의 재판도 서서히 막을 내리려는 듯하다. 물론 앞으로 항소심도 있고, 다른 지역의 소송도 남아 있지만 미국에서는 상소를 해서 뒤집히는 예가 거의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 애플이 패소한다고 해도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삼성으로서는 더 이상 뒤집을 만한 카드가 없는 듯 보인다. 삼성이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모두 표준 특허인데 이미 독일과 미국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한국에서는 2건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며 네덜란드는 성실하게 로열티 협상을 하도록 지시했다.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 표준 특허는 누구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이 적용되므로 삼성이 앞으로 통신 특허로 승소를 한다고 해도 큰 이득은 없을 것이다. 또 애플은 아이폰 4S의 통신 칩을 인텔에서 켈컴으로 옮겼기 때문에 최신 제품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은 애플 제품을 표절했다는 판결에 핀치 투 줌(pinch to zoom,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줄이고 축소하는 기술) 같은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 나오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보면서 마치 애플 때문에 대소송의 시대가 온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도 IT 기업 간의 소송은 셀 수 없이 많았고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도 했다. 현재 파산 절차 중인 코닥이 몰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플라로이드와 벌인 소송이었다. 즉석카메라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플라로이드가 코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은 무려 15년간이나 이어졌으며 결국 플라로이드가 승소했다. 코닥은 손해배상금으로 8억7천3백만달러를 지급해야 했고, 기타 비용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이 소송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었고 결국 회사의 경쟁력까지 값어치이며 두 회사 모두 파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 거대 기업의 근본까지 흔드는, 반독점법

잘나가는 IT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반독점법일 것이다. 미국의 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트랜지스터를 최초로 개발할 정도로 최고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벨은 세계 최대의 IT 기업이었지만 1974년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배해 결국 8개 회사로 분리되고 말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IBM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몰락한 것도 알고 보면 반독점법의 영향이 크다. 1969년 IBM은 반독점법으로 제소되었고, 무려 13년간이나 재판이 계속되었다. 친기업 성향의 레이건 대통령 덕분에 소송을 끝낼 수 있었지만, 장기간 계속된 소송으로 기업의 역동성과 경쟁적인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왕좌를 물려주고 과거의 화려했던 위용을 잃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소송을 받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역사상 최대 위기를 겪었다. 소송 과정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사를 쓰러뜨리기 위해 사용한 부당한 방법들이 공개되면서 기업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컴퓨터 제조사였던 퍼시픽 벨이 넷스케이프와 계약을 맺자 스티브 발머는 CEO인 데이비드 도어맨에게 내게는 친구 아니면 적밖에 없다면서 지금 당신은 내게 적이 되었다고 협박을 했고, 넷스케이프와 경쟁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는 넷스케이프의 산소통을 없애버리겠다는 메모가 나돌았다. 승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경쟁사를 무너뜨리겠다는 자극적인 말들이 오갔는데, 이러한 회사 내부의 메모들은 나중에 반독점법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빌 게이츠가 직접 나서서 미국 정부와 벌인 소송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땅 밑까지 추락한 회사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회사의 CEO 자리를 스티브 발머에게 물려주고 자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에 16억달러를, IBM에 7억7천5백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다. 상소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분할 명령은 취소할 수 있었지만 IBM처럼 상처뿐인 영광만이 남았고, 기업 경쟁력의 후퇴와 함께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넘겨주어야 했으며 구글에는 맹추격을 당하고 있다.

## 법을 창의적으로 이용하라, 인텔과 닌텐도

법은 큰 타격을 주기도 하지만 유리하게 이용하면 기업에 큰 이득을 가져다준다. 지금은 인텔이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한때는 인텔 제품을 모방하는 기업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시절이 있었다. 이에 인텔에서는 자사 제품을 모방하는 기업들에 철퇴를 내리기 위해 법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허를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앤디 그로브는 CPU에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를 특허 기술이 아니라 문화 작품의 시처럼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인텔 CPU에 들어간 명령어들은 저작권으로 인정받았고, 이 때문에 기존에 복제 CPU를 만들던 업체들은 대부분 시장을 떠나야 했다. 닌텐도는 일찍이 법의 중요성에 눈을 뜬 회사다.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사인 유니버설 영화사는 닌텐도의 게임인 동카공이 히트하자 자사의 인기 영화인 <강공>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유니버설 영화사처럼 거대 기업이 소송을 하면 대개 합의를 하기 마련인데, 닌텐도는 주변의 만류에도 변호사 하워드 링컨을 고용해서 승소를 하면서 법에 강한 기업이 되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인 하워드 링컨은 닌텐도 미국 법인의 수석 부사장 자리에 올랐고, 이후에 자사의 제품을 복제하는 업체들을 불법으로 몰아낼 수 있었으며 반독점법에서도 승소하게 되었다.

법에 대한 창의적인 이해는 기업의 생사를 가르기도 하는데, 한때 비디오게임 시장의 제왕이었던 닌텐도의 라이벌, 아타리 역시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닌텐도가 비디오게임 시장에 진출할 즈음에는 VCS 2600을 개발한 아타리가 업계의 제왕이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아타리는 VCS 2600으로 게임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로열티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때의 결정이 중요한데, 아타리의 변호사들은 로열티를 받으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다른 기업들에 로열티를 받는 것을 말했다. 결국 아타리 VCS 2600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게임을 내놓을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저질 게임들이 판을 치면서 VCS 2600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회사도 몰락했다. 하지만 닌텐도는 아타리와 정반대의 방법을 취했다. 자사의 게임기로 게임을 발매하는 기업들을 엄격하게 선택해 고품질 게임만 발매할 수 있도록 했고, 게임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은 덕분에 큰 수익을 얻으며 명실공히 게임 업계의 황제가 되었다.

**진짜 문제는 특허 괴물이다. 특허 괴물은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기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얻으려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을 뜻한다. 최근 특허 괴물들의 활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국내외의 수많은 기업들이 특허 괴물에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물게 된, 대소송의 시대가 온 것이다.**

##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소송 대신 상생의 길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도 소송이 큰 역할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2.0을 내놓자 애플은 자사의 운영 체제를 도용했다며 제소했다. 하지만 이때 법원은 빌 게이츠와 애플의 CEO였던 존 스컬리의 라이선스 협상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시켰다. 윈도우 1.0을 내놓을 당시 빌 게이츠는 자사의 인기 소프트웨어인 엑셀을 2년간 매킨토시용으로만 독점 공급해주다면서 매킨토시에 사용한 인터페이스를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요구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존 스컬리는 엑셀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말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매킨토시의 인터페이스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벌인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두 회사의 법적인 분쟁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돌아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스티브 잡스는 다시 한 번 지적재산권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빌 게이츠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애플과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쟁점으로 여기던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에게 중역을 파견해서 협상을 진행했다. 빌 게이츠는 애플과 특허를 공유하는 대신 애플에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고 매킨토시에 MS 오피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장해주었다. 도산 위기에 처했던 애플은 이 협상을 통해서 투자자들로부터 회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두 회사가 협력하기로 한 날 이후부터 애플의 사정도 좋아졌다.

## 기업을 값어치는 특허 괴물의 등장

IT 기업 간의 소송전은 매일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8월부터는 자바와 관련된 특허를 두고 구글과 오라클이 소송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1차 판결에서 구글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오라클이 항소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소송이 진행될 것이며 전문가들은 두 회사 간의 소송으로 5천만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구글에게 밀리고 있는 오라클이지만 지난 8월 SAP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승리를 거둬 3억달러를 배상받기도 했다. 모토로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비디오 처리 기술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펼치고 있으며 삼성과 LG는 오스람과 오랫동안 특허 분쟁을 겪었다. 그 밖에도 이 글에서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소송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실 IT 기업이 기술로 경쟁하기보다는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경쟁사들을 위협하는 현재의 상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싫든 좋든 법적인 소송은 IT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법적인 분쟁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특허 괴물이다. 특허 괴물은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기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얻으려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을 뜻한다. 최근 특허 괴물들의 활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국내외의 수많은 기업이 특허 괴물에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물고 있다. 분명 이런 현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이제는 기술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통찰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레이트 특허 괴물들에 의해 펼쳐지게 될 진정한 대소송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ST** 글 김경민 IT 전문 멀티라이터, (가희의신, 스티브 잡스) 저자, <http://www.multwriter.co.kr>

# Face of Watch

시계를 선택하는 기준에 우선순위가 있을까? 브랜드의 인지도와 명성, 기능, 정확성, 소재, 가격 등 다양한 요소가 있었지만 의외로 시계의 얼굴, 다이얼이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결국 선택에 있어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만 알려주는 패패 추월 캘린더 기능을 하든, 스테인리스 스틸이든 골드나 플래티넘 이든, 가격이 저렴한 초고가이든 결국 이를 구입하는 고객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최종 선택을 좌지우지할 것이라 말이다. '무조건 예뻐야 해'라는 명제가 진실이 되는 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계의 얼굴이 되는 다이얼은 중요하다. 기계식 시계를 보면 증거가 제품은 무브먼트를 직접 제조하는 기술이 없거나 설비를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ETA나 셀리타 등 무브먼트 전문 제조사에서 만든, 널리 쓰이는 무브먼트를 공급받아 쓰는 경우가 많다. 각 브랜드에서 거기에 약간의 수정을 하기도 하고 개성에 맞는 다이얼과 케이스로 감싸면 같은 완전히 다른 시계가 되는 것이다. 같은 무브먼트라도 소재나 마무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다이얼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이엔드급 시계 브랜드에서는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쓰는 열정만큼 다이얼에도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예나멜, 인그레이빙, 기요세, 켈 세팅 등 좀 더 세밀한 공예 기술이 사용된다. 시간을 표시하는 인텍스도 도장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자든 바든 각각 제작해서 하나하나 부착하는 방식이다. 최근 시계 다이얼을 살펴보면 한 가지보다 여러 가지 공예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복제 불가능한 것으로 시계 자체의 가치를 예술품의 경지로 높여주는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 금속 실로 형태를 만든 후 에-멜을 채우는 신마르코 시계 다이얼, 올리브 나르덴. 2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그리는 에-멜로 재현했다. 예가르르르. 3 그랑 외 다이얼에 인텍스를 넣는 과정, 올리브 나르덴. 4 그랑 외 방식으로 구운 화이트 다이얼 위에 한자 달력을 그린 빌레 트레비신 차이나즈 캘린더 시계, 블랑팡. 5 블랙 에-멜로 그린 뒤 그 위에 리모주 화이트 칼라를 덮고, 이를 송곳으로 구멍내어 바탕의 블랙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리자유(greissage) 에-멜 방식으로 송곳이를 묘사한 로몽드 드 카르피에 시계, 카르피에.

## Enamel

초창기 시계를 보면 시계 재료와 동일한 구리나, 금과 같은 금속판 위에 시간을 표시하게 하고 시계바늘을 얹은 형태였다. 시계바늘이나 케이스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시계 자체를 돋보이게 한 것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다른 장식적 효과를 위해 다이얼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때 사용된 소재가 에-멜이다. 금속 표면에 인하는 반광을 띠우려하기가 쉬울 것이다. 다양한 색을 내는 유리질의 돌로 만든 기를 기를 깨어 고온에 구워내는 방식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가지 색으로 다이얼 전체를 덮는 것인데 이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다. 현대의 중저가 시계에는 대량생산하기 용이한 예복시 수지를 100°C 정도의 온도에 굽는 골드 에-멜 기법이 사용되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800~900°C 온도에 구워야 한다. 그래서 큰 불이란 의미의 프랑스어 용어, 그랑 펠(Grand feu)라고 부르는데 온도가 굽는 시간과 식히는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다. 각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뒤집히고 깨질 수 있으므로 장인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더 난이도를 높인 것이 에-멜 페인팅으로, 세밀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다. 초상화나 거장의 걸작 같은 다양한 모티프를 지름 30~40mm의 작은 다이얼에 재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를 위해 수십 번 굽고 식히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에-멜 기술의 최고로 여겨진다.



## Stone Setting

여성 시계의 최고봉은 보석이다.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등과 같은 가치 있는 보석을 총총하게 세팅하는 것이 여성 시계의 미덕처럼 여겨졌다. 최근에는 남성 시계에도 이런 보석을 장식하기 시작한 말이다. 쇼파드의 폴 파베 다이아몬드 시계처럼 보석이 많이 들어기면 디자인에 맞는 적절한 크기와 컬러의 보석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 올해 워블로가 소개한 5백만달러짜리 빅뱅 시계는 보석을 찾는 데만 8개월이 소요됐다는 후문이다. 보석 브랜드마다 특유의 세팅법이 있듯이 시계 브랜드도 각자 내 세우는 세팅법이 있다. 예컨대 예가 르르르르의 크고 작은 보석을 총총하게 세팅하는 스노 세팅을 자랑한다. 올해 68회를 맞은 베니스 국제영화제를 기념해 소개한 리베르스 스크드라이트 아이스는 1천7백55개의 사파이어, 1천3백 개의 다이아몬드를 다이얼 앞뒤에 세팅했다. 쇼파드의 시계도 스노 세팅이다. 각기 다른 자리의 다이아몬드로 총총하게 세팅했다. 색이 미묘하게 다른 자석으로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주얼리와 달리 시계에 보석을 사용하면 케이스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여기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1 코카리트를 얹은 천인의 동근 원은 초침 역할을 하는 스노 세팅이다. 시계 자체의 기능을 아름답게 구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크레이지 징글 허비 퍼플, 부쉬론. 2 보석을 세팅한 꽃이 방금방금 돌아다니도록 디자인한 라모리아트 파티 시계, 파티제. 3 다이얼은 스노 세팅,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알파리엔 투르비용 톱셋, 쇼파드. 4 다이얼에서 케이스까지 일체로 총총하게 보석을 세팅한 리베르스 스크드라이트 아이스, 예가 르르르르. 5 레 유, 베르 캉레션 시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있다. 비쉐론 콘스탄틴.



## Mother of Pearl

여성 시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재가 자개이다. 자개 특유의 색과 무늬를 이용하는데 그 은은함이 아주 여성스럽기 때문이다. 화이트에서 블랙, 그레이 등 천연 자개부터 약간의 염색을 더해 핑크와 블루와 같은 여러 가지 미묘한 색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다이얼 전체를 자개로 꾸미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자개에 조각을 넣거나 자개 잘라 모자이크 형식으로 꾸미거나 자개 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등 다채로운 방법을 사용한다. 예술적인 다이얼에 치중하는 까르피에 다른 컬렉션에서 소개한 톱뿔 시계는 화이트에서 파스텔 핑크 컬러로 그레데이션되는 자개 위에 조각을 해서 새의 깃털을 표현해냈다. 새의 눈과 부리, 도가마리는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을 채우는 상르레 에나멜 기법을 사용했다.



1 장미꽃 주위를 감색톤의 자개로 장식한 로즈엔 펠츠 시계, 보베. 2 꽃을 행하는 새가 은은한 자개 다이얼에서 더욱 돋보인다. 베이저 톱뿔로 허비스카스 투르비용 시계, 부쉐론. 3 영무늬 모티프의 톱뿔 시계, 까르피에.



1 기요세 작업에도 현미경이 동원된다. 비쉐론 콘스탄틴. 2 5~6가지 기요세 무늬를 사용한 클리프 크로노메트리, 브레게. 3 각자 무늬로 꾸미는 로알 오코 테라스트리 다이얼, 오데마 피게.

## Guilloché

기계를 사용해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새기는 것을 기요세, 영어로는 엔진턴(engine-turn)이라고 한다. 다양한 요철 무늬를 내는 판을 기계에 끼워서 돌리면 그 요철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무늬를 다이얼에 새기는 방식이다.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원하는 곳에만 무늬를 내기 위해서는 일일이 사람이 무늬가 들어갈 부분에 꼭 맞춰 깎아내는 작업을 조정해야 한다. 그냥 무늬를 찍어내는 것과는 세밀함이 다르다. 기요세는 특정 브랜드의 시그니처처럼 자리 잡고 있다. 오데마 피게의 티피스트리는 각자 무늬로 다이얼 전면을 덮는 단순한 방식이다. 좀 더 정교한 기요세로 대표적인 브랜드는 브레게. 2~3개에서 6~7개의 기요세는 시계의 크고 작은 기능을 돋보이게 해줄뿐 아니라 클래식하고 우아하다.



## Skeleton & Engraving

스켈레톤은 다이얼 판을 따로 얹지 않고 무브먼트의 골격 그 자체를 보여주는 형태를 말한다. 올해 피아제가 소개한 알티몰라나 스키텔론 울트라씬은 세상에서 가장 얇은 스키텔레톤 스키텔레톤 무브먼트임을 강조했다. 모사리를 닮는 앵글링에 유독 신경 쓰고 로동 코팅으로 반짝거리도록 제작했는데 다른 장식이 일절 없지 않잖아 아름다움이 있다. 인그레이빙은 이름 그대로 조각도로 일각 또는 일각으로 금속판을 깎는 작업이다. 주로 스키텔레톤 다이얼에 많이 사용된다. 무브먼트의 연결 부품을 그대로 노출하기에는 맞지 않거나 거기에 조각을 더하는 방식이다. 실제 조각가 출신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40mm 이내의 작은 크기에 인그레이빙해야 하므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장인이 많지 않다. 최근에는 스키텔레톤이 보편화되면서 리사르 밀처럼 무브먼트에 조각을 덧붙여 인체적인 다이얼로 차별화하는 브랜드도 돋보인다.

1 알티몰라나 스키텔레톤 울트라씬 무브먼트 작업 장면, 피아제. 2 무브먼트 사이로 용이 지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RM057, 리사르 밀. 3 4 다이얼 주변에 일각으로 당초 무늬와 같은 문양을 새긴 플라리아 시계, 보베.

## Mixed Media

코르크, 깃털,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까지 시계에도 쉽게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된다. 용이가 있거나 결, 색이 다른 나무들을 잘라 퍼즐처럼 맞춰 끼우는 미헨테리 기법으로 제작한 정교한 다이얼도 있다. 올해 에르메스와 까르피에는 나무가 아닌 염색한 밀짚을 사용한 다이얼을 소개했다. 흔한 밀짚이 예술적인 소재로 변모한 것이다. 한편 깃털도 시계에 사용됐다. 다음 앵베르세는 로테를 다이얼 위로 올린 버전, 그리고 그로터 위를 깃털로 장식했다. 여러 가지 기법을 혼용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반클리프 아펠이다. 감성이 풍부한 사적인 시계를 지향하는 브랜드답게 다이얼에 무척 공을 들이는데 여러 가지 에나멜과 보석 세팅, 조각 등의 기법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느껴지는 극적인 효과를 선사한다.



1 염색한 밀짚을 얹어 퍼즐 형태로 잘라 상강한 로몽드 드 카르피에 시계, 까르피에. 2 각기 다른 컬러의 양상을 장형으로 얹어 잘라 모자이크 형태로 구성된 다이얼, 까르피에. 3 색이 고운 깃털을 하나하나 둘러싸며 부착한 모리엘 페르스, 해리 윈스턴. 5 미완적으로 염색한 밀짚을 직조하듯 감쳐 무늬를 만든 아반 미헨테리 파이오, 에르메스. 6 자개 다이얼 사이에 여우늪을 가리던 용이 잠겨 있는 듯한 예술적인 브러쉬 드래곤 시계, 자개 드로. 7 빈티지 부가티 자동차의 대시보드에서 영감을 받아 발무드를 얹어 잘라 다이얼에 붙인 스포츠 컬렉션, 람프르렌. 8 인그레이빙, 에-멜, 보석 세팅 등 하나의 다이얼에 세밀한 여러 기법을 사용한 포에터워시 시계, 반클리프 아펠.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가지 컬러의 골드를 네 가지 텍스처로 가공해 짜 맞춘 모던한 디자인의 쿼트르 펜던트, 실크 스트링을 매치해 남성적인 매력을 더했다. 4백만원대 **부쉐론**.

산토스 100 워치에서 모티브를 얻은 산토스 100 펜던트, 스틱에 옐로 골드를 세팅했다. 1백30만원대 **까르띠에**.

그린 컬러 실크 스트링에 빠른리 펜던트 두 가지를 매치한 우아한 디자인의 브레이슬릿, 핑크 골드 펜던트 2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펜던트 3백만원대, 실크 스트링 30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동물의 뿔 모양으로 디자인한 18K 화이트 골드 중앙에 남양 흑진주를 세팅한 과감한 디자인의 남성용 롱 네크리스, 4백40만원대 **미하라 아사히로 by 타사키**.

타파니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팔로마 피카소가 모로코의 전통적인 모자이크 타일 장식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절리지 컬렉션 중 브레이슬릿,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다. 50만원대 **타파니**.

화이트 골드 밴드 가장자리를 원형 비즈로 장식한 빠른리 시그니처 링, 무광으로 폴리싱해 질감이 독특하다. 5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완전히 같은 크기의 링 3개를 서로 짜 맞추고, 완벽한 삼위일체 구조의 트리니티 링, 세 가지 골드의 다양함과 하모니를 담았다. 3백만원대 **까르띠에**.

로마숫자가 오픈워크 기법으로 새겨져 있는 아틀라스 오픈 링, 2백만원대 **타파니**.

브라운과 블랙, 옐로 골드까지 다양한 컬러의 골드 원형 모티프가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미니 머스트 3링 브레이슬릿, 3백만원대. **다미아니**.

행운을 상징하는 뱀을 형상화한 펜던트, 도전적인 디자인이 강렬하다. 옐로 골드에 가죽 스트링을 매치했다. 1천4백만원대 **부쉐론**.

모터 레이싱에서 영감을 얻은 팔로마 칼리퍼 컬렉션, 스테인리스 스틸에 티타늄 소재를 더했다. 70만원대 **타파니**.

로마 동전을 그대로 주얼리 펜던트로 활용한 모네페 네크리스, 2천만원대 **불가리**.

스틸링 실버와 티타늄이 어우러진 아틀라스 펜던트, 60만원대 **타파니**.

브라운 골드 컬러의 크로스 모티브 메트로 폴리탄 드림 네크리스, 정교하게 세공한 십자가 위에 다이아몬드가 심플하게 세팅되어 있다. 5백40만원대. **다미아니**.

옐로·핑크·초콜릿·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쿼트르 컵스 링크, 1천5백만원대 **부쉐론**.

와일드한 철조망에서 영감을 얻은 실버 브레이슬릿, 연결 고리에 진주를 세팅한 것이 특징이다. 1백30만원대. 실버 소재 링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디자인한 유기적인 형태의 링 2백70만원대. 모두 **미하라 아사히로 by 타사키**.

비, 제로원 마블 컬렉션, 대리석의 우아함을 클래식한 비, 제로원 디자인에 그대로 담았다. 매끈한 곡선이 인상적인 세계적인 건축가 아날리시 카푸가 디자인한 비, 제로원 링 각 1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에디터 **베미진**

불가리 02-2056-0172

까르띠에 1566-7277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타사키 02-3479-1232

다미아니 02-546-3632

타파니 02-547-9488

부쉐론 02-543-6523

# Material Influence

한 시즌만 지나면 잊힐 패션 액세서리는 소모품일 뿐이다. 진짜 멋을 아는 남자라면, 단 하나로도 충분한, 평생을 지니며 매 순간을 추억할 수 있는 남자만의 주얼리가 필요하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 The Best Time

역사 깊은 워치메이커라면 브랜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컬렉션이 있기 마련이다. 오래도록 많은 남성들에게 사랑받아온, 꼭 기억해야 할 베스트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브레게 클래식 컬렉션 5140BB** 심플한 다이얼에 정교하게 새긴 기묘세 패턴이 인상적인, 브레게의 가장 대표적인 남성용 워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자판에 새긴 기묘세 패턴은 브레게가 처음으로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는 컬렉션이다. 셀프와인딩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다. 2천3백만원대. 문의 02-3438-6218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문위치 코-엑시얼** 인류의 위대한 역사인 달 착륙 시 착용한 최초의이자 유일한 시계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워치. 현재까지도 나사(NASA)에서 인정하는 모든 유인 우주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워치다. 문위치 코-엑시얼 워치는 '문위치를 그대로 재현하되, 수동식 무브먼트 대신 3313 무브먼트를 장착해 더욱 정확하다. 7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로저 드뷔 엑스칼리버 컬렉션** 독특한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로저 드뷔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인 엑스칼리버 오토매틱 플라잉 투르비옹 워드 오픈 다이얼 마이크로 로터 워치. 화려함의 극치인 디자인만큼 다양한 기능을 담았다. 시간 오차를 줄여주는 플라잉 투르비옹과 로저 드뷔 매뉴팩처에서 개발해 제네바 실 마크를 획득한 RD520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38-6195

**IWC 파인렛 워치 크로노그래프** IWC의 명성을 드높여준 포르투기즈 워치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파인렛 워치. 70여 년간 전문 항공 워치를 만들어온 브랜드인 만큼 조종석의 계기판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정밀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담았다. 칼리버 79320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7백만원대. 문의 02-2639-1950

**제라드 페리고 WW.TC 크로노그래프** 1791년 제네바에서 초박형 무브먼트를 선보이며 명성을 쌓아온 제라드 페리고를 대표하는 WW.TC 크로노그래프 워치. 세계 각지의 시각을 표기하는 월드 타임과 24시간 타임 존을 담아 해외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실용적인 모델이다. 복잡한 기능에 비해 조작이 간단하다. 26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4천만원대. 문의 02-2230-1148

**브라이틀링 내비타이머 01** 1952년 파인렛을 위해 내비게이션과 타이머의 기능을 결합한 워치로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43mm에 달하는 볼드한 다이얼에 비행기를 운행할 때 필요한 모든 계산이 가능한 회전형 슬라이드 룰을 적용했다. 브라이틀링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칼리버 01을 장착했다. 2천9백만원대. 문의 02-3448-1230

**위블로 빅뱅 에블루선 골드 세리믹** 불륨감 넘치는 디자인으로도 남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위블로 빅뱅 컬렉션. 44mm에 달하는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블랙 세라믹 베젤로 구성되어 있다. 빅뱅의 특징인 케이스에 세팅한 6개의 나사는 티타늄 소재다. 4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추었으며 위블로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Hub4100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4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에디터 **배미진**

CONTA



Distagon 2,8/45

T\*



### 패턴의 믹스 매치를 즐겨라

프린트 셔츠엔 슬리드 타이를 선택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보다 감각적이고 개성 있는 비즈니스 룩을 원한다면 패턴과 패턴의 매칭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번 시즌엔 패션 전반적으로 그래픽, 동물, 플라워 등의 프린트가 유행하면서 타이 역시 화려하고 다양한 패턴으로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기본 프린트인 스트라이프부터 도트, 하우스투스, 오버 체크, 페이스리, 옵티컬, 사물이나 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모티프 프린트까지 조금은 과한 듯하지만 스타일을 살려줄 매력적인 프린트가 가득하다. 프린트 타이라고 해서 화이트 셔츠에만 매치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자. 스타일리스트 유현정은 “자고로 스타일에 유틸리티와 센스를 더하려면 정해진 규칙이나 틀에 박힌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 셔츠에 페이스리 무늬 타이를 매치하거나 도트 셔츠에 옵티컬 프린트의 타이를 더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프린트 믹스 스타일은 수트에는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립니다”라고 조언한다. 프린트와 프린트의 매치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셔츠나 타이 둘 중 하나를 작고 은은한 패턴으로 선택하고, 전체적인 컬러 톤을 보색 계열로 맞추거나 프린트에 사용한 컬러를 부분적으로 통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에디터 권유진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네이비와 파스텔 블루 컬러가 조화를 이룬 스트라이프 셔츠 1백8만원, 레드 컬러 레지멘탈 실크 타이 37만원 모두 브리오니, 은은한 그레이 톤의 잔 체크 셔츠 61만원, 하우스투스 체크 실크 타이 24만원 모두 에르메네제일도 제나,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 21만원 로다 by 지스트릿 494 옴므, 울 소재의 스트라이프 타이 21만원 블랙 플리스 by 지스트릿 494 옴므, 하트 모티프의 블루 셔츠 56만원, 옵티컬 프린트가 유니크한 실크 타이 24만원 모두 프라다, 파스텔 블루 도트 프린트가 감각적인 브라운 셔츠 39만원, 진정한 플라워 프린트가 화려한 실크 타이 19만원 모두 폴 스미스, 그린 컬러 스트라이프 패턴이 신뜻한 셔츠 47만원 랑방, 공룡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실크 타이 가격 미정 질센더, 화이트 스트라이프가 깔끔한 파스텔 블루 셔츠 88만원 브리오니, 화살 모티프의 브로치를 프린트한 감각적인 타이 30만원대 루이 비통, 화사한 핑크 컬러 스트라이프 셔츠 63만원, 에스닉한 프린트가 돋보이는 퍼플 컬러 타이 27만원 모두 말프로렌 퍼플 레이블, 세련된 각자무늬 셔츠 91만원, 플라워 패턴과 도트 패턴이 조화를 이룬 실크 타이 43만원 모두 키톤.

브리오니 02-516-9686 에르메네제일도 제나 02-2016-5325 랑방 02-6905-3635  
 질센더 02-514-2795 폴 스미스 02-3447-0278 프라다 02-3442-1830  
 키톤 02-6905-3787 말프로렌 퍼플 레이블 02-545-8200 루이 비통 02-3432-1854  
 지스트릿 494 옴므 02-3449-4494

# Tie Lover

올가을엔 타이 선택에 있어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풍부한 컬러, 화려한 프린트를 담은 타이가 이번 시즌 트렌드이기 때문. 매일 아침 습관처럼 타이를 매고 있다면 셔츠와 타이의 프린트 믹스 매치를 통해 스타일링에 재미를 더해볼 것.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 The Way He Wears

하이백 니트와 트렌치코트, 클래식함에 유행이 느껴지는 슈즈를 더하면 지금 가장 멋진 남자를 위한 아이템은 모두 갖춘 것이다. 2012 남성 F/W 컬렉션으로 멋지게 차려입은 두 남자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방콕의 핫 플레이스, 뮤즈 호텔(Muse Hotel)에 나타났다. photographed by **park jung min**



(왼쪽) 더블 재킷 2백70만원대, 화이트 터틀넥 60만원대, 화이트 셔츠 50만원대, 그레이 팬츠 1백만원대, 블랙 슈즈 1백10만원대, 레드 브로치 30만원대 모두 프리다. 안경 19만5천원 트리티 by 프로덕트 서울. (오른쪽) 퍼플 컬러 재킷 2백70만원대, 블랙 셔츠 50만원대, 그레이 베스트 1백만원대, 브라운 팬츠 1백만원대, 브라운 슈즈 1백10만원대, 블랙 벨트 8만원 모두 프리다. 안경 19만5천원 트리티 by 프로덕트 서울.



그린 컬러 벨벳 재킷 가격 미정, 팬츠 1백만원대, 화이트 셔츠 79만원, 니트 롱 가격 미정, 트렌치 코트 가격 미정, 브라운 글러브 가격 미정 모두 베버리 프로덕션. 실버 슈즈 68만원 파치모티.

그레이 케이블 니트,  
그레이 터틀넥,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왼쪽) 브라운 코듀로이 재킷 3백만원대,  
팬츠 90만원대, 베스트 1백만원대, 체크  
패턴 셔츠 가격 미정, 니트 타이 가격  
미정, 포켓 스케어 가격 미정, 브라운 슈즈  
1백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블랙  
안경 19만5천원 **트리티 by 프로덕트 서울**.  
(오른쪽) 베스트 가격 미정, 팬츠 가격 미정,  
파스텔 블루 셔츠 50만원대, 블랙 타이 가격  
미정, 블랙 레더 글러브 가격 미정, 블랙  
슈즈 80만원대 모두 **Z 제나**.



(왼쪽) 네이비 체크 재킷 1백38만원  
 보스 블랙 맨, 블랙 팬츠 가격  
 미정, 블랙 터틀넥 40만원대 모두  
 니나리치 맨, 화이트 체크 셔츠  
 20만원대, 닥스 (오른쪽) 블랙 재킷  
 40만원대, 베스트 30만원대, 그린  
 체크 셔츠 10만원대, 네이비 터틀넥  
 40만원대 모두 니나리치 맨.



그레이 톤, 카키 컬러 재킷, 카키  
 컬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다음 줄은 네이비 스웨이드 셔츠  
 4백74만5천원, 토즈, 브라운 레더  
 스트랩 시계 1백만원대, 부로바  
 아큐트론 by 갤러리아몰락.



레드 더블 재킷, 그레이 팬츠, 레드  
 스트라이프 셔츠 모두 가격 미정  
 테드 베이커, 네이비 도트 타이  
 17만9천원, 옐로 부토니에 5만원  
 모두 라피규라 by 스튜디오 K,  
 브라운 슈즈 75만원, 네이비 레더  
 글러브 49만5천원 모두 토즈 블랙  
 반테 안경 19만5천원, 트리티 by  
 프로젝트 서울.



(왼쪽) 와인 컬러 패턴 재킷 4백만원대, 블랙 팬츠 80만원대, 버건디 니트 톱 1백만원대, 화이트 셔츠 가격 미정, 스카프 30만원대 모두 구찌. (오른쪽) 네이비 패턴 재킷 4백만원대, 블랙 팬츠 80만원대, 스카프 30만원대, 블랙 카디건 가격 미정 모두 구찌.



패치워크된 네이비 재킷, 트렌치코트, 블랙 진, 화이트 패턴 셔츠, 블루 타이, 블랙 슈즈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에르메스 02-3015-3233  
 님스 02-517-8961  
 바버리 프로섬 02-3485-6536  
 니나리치엔 070-7130-7786  
 구찌 1577-1921  
 스튜디오 K 02-518-8984  
 루이비통 02-3481-2558  
 프라다 02-6905-3782  
 프로덕트 서울 02-790-0797  
 토즈 02-3479-6041  
 보스 블랙 앤 02-3448-3003  
 파치오티 02-545-8757  
 갤러리아몰락 02-6905-3510  
 더울 올드 02-513-3232  
 에르메네젤도 제나 02-2016-6325  
 Z 제나 02-546-6287  
 테드 베이커 02-3444-1708



헤어&메이크업 김환  
 모델 안드레이, 알렉산드로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에디터 배미진  
 로케이션 유즈 호텔 방콕

샴페인과 함께하는 오감 만족 스키 여행

# in the Snow

추운 계절보다 더운 계절을 선호한다는 '서머타임' 예천론자들조차도 하얀 눈송이와 동지 팔죽을 못내 그리워할 법했던 지난여름,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호주처럼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한편 7, 8월에는 겨울을 나는 곳도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겨울이라 해도 스키장을 찾는 건 기후가 온화한 이 남반구의 나라에선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하물며 때묻지 않은 기막힌 설경을 눈요깃감 삼아, 앉으나 서나 일싸하게 툭툭 쏘는 샴페인을 만끽할 수 있는 청량감 넘치는 스키 여행이라면? 프렌치 샴페인 브랜드인 뵈브 클리코가 오감을 색다르게 충족시키는 특별한 피서를 제안한다.

## 설원의 산장에서 피어하는 샴페인 향내

듣기만 해도 '질링'과 '힐링'이 절로 될 듯한 이 근사한 피서의 목적지는 시드니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쯤 지나 쿠마(Cooma)의 공항에 도착한 다음, 또다시 차로 1시간을 달리면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는 스레드보(Thredbo) 빌리지. 호주에서 몇 안 되는 스키 리조트가 자리 잡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아담한 마을로,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현지인들에게도 선망의 장소다.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 2000m가 넘는 '리프트 포인트'를 뚫내는 이 리조트 타운엔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에 등장할 것만 같은 고즈넉한 산장형 호텔들이 웅기쭈기 모여 있는데, 호젓한 느낌과 함께 뭔가 특별한 일을 잔뜩 준비해두고 있는 듯한 신비한 오라가 공존한다. 흔치 않은 경험을 선사하는 데 탁월한 재주를 지녀 파티의 달인'으로 통하는 뵈브 클리코가 택한 장소답다. 이 시크한 샴페인 브랜드의 겨울 시즌 행사인 '클리코 인 더 스노우(Clicquot In the Snow)'가 이곳에서 일주일(7월 30일~8월 5일)간 펼쳐졌다.

뵈브 클리코 행사를 찾은 다국적 손님을 위한 보급자리는 후원에서 몇 발짝만 움직이면 스키 리프트로 바로 통하는 최적의 위치를 자랑하는 스레드보 알파인 호텔(Thredbo Alpine Hotel). 고풍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이 호텔의 로비는 싱그러움 샴페인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뵈브 클리코 특유의 오렌지색이 감도는 선명한 옐로로 단장한 1층 바에서는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바텐더가 흑여 손님들의 잔이 빌세라 연신 샴페인을 따르고, 특별히 초청된 DJ가 신명 나는 음악을 실재 없이 들려주었다. 심지어 뵈브 클리코 특유의 멋스러운 로고가 새겨져 있고, 오렌지빛 나는 노란색이 선명한 탁구대까지도 흥을 돋우었다. 처음엔 슬슬 차다가 점차 당시 진행되고 있던 런던 올림픽이라도 참가한 듯 경기에 열중한 이들도 누군가 탁구공을 주 올리자면 그 틈을 타 옆에 놓이둔 샴페인을 어김없이 훔쳐먹었다.

## 오렌지색 도는 '클리코 옐로우'로 입혀진 다채로운 미각 체험

하지만 진정한 오프닝 파티의 장소는 따로 준비돼 있었다. VIP 속 소인 알파인 호텔에서 멀지 않은 또 다른 호텔인 덴만(Denman)에 마련된 뵈브 클리코 산장에서 스키장 밖에서 치러지는 공식적인 '오프 피스트(off piste, 스키 코스 밖)' 축하 파티가 열린 것. 깔끔한 블랙&화이트 톤을 배경으로 한 공간에 멋진 빨이 달린 시슴 머리를 판

자를 이용해 단순하게 형상화한 작품을 비롯해 스키 보드, 샴페인 버킷, 쿠션 등 '클리코 옐로우' 색상을 입힌 장식품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했다. 모델 겸 싱어송라이터인 사이엔 토치 등 현지 셀러브리티들이 모습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눈부신 선남선녀들이 샴페인에 흠뻑 빠진 모습으로 화려한 밤의 열기를 더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상의 로맨틱한 산장에서 화끈하게 출발한 '클리코 인 더 스노우'의 여정은 매일같이 다른 행사로 다채롭게 채워졌다. 초콜릿 소스에 버무린 송아지 고기 등 독특한 요리와 샴페인이 함께하는 만찬, 산 중턱에 위치한 귀여운 오두막에서 맛난 에그 베네티트와 신선한 과일로 하루를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샴페인 브런치, 샴페인을 마시며 스노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튜브 마라톤... 물론 중간중간에도 '팝업 스노우 바'에서 얼미든지 샴페인을 즐길 수 있다. 여정의 백미는 설원 위에 펼쳐진 '클리코 인 더 스노우 피크닉.' 왕새우, 가리비, 바닷가재 등 싱싱한 해산물부터 채소와 고기를 듬뿍 넣은 특제 샌드위치, 감칠맛 도는 소스가 일품인 딱딱한 볶음우동까지. 샴페인을 곁들인 산해진미를 인적 드문 티 없는 눈밭에서 만끽할 수 있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을 수밖에. 다소 춥더라도 '클리코 옐로우' 색상의 폭신한 빈백 의자에 폭신한 담요를 덮고 앉아 난롯불을 쬐면 온몸이 사르르 녹았다.

## 편안하고 쿨한 럭셔리리의 진수를 보여주다

이처럼 뵈브 클리코의 스타일로 즐기는 겨울 시즌 이벤트 '클리코 인 더 스노우'는 다섯 코스의 정찬인 '클리코 데귀스타시옹 디너'로 그 마침표를 찍었다. 굴, 연어, 오리와 송아지 고기, 블랙 트뤼플 등 '육해공'이 어우러진 재료로 만든 요리에 맞춰 뵈브 클리코 옐로 레이블부터 로제, 빈티지 2004와 라 그랑 담 2004 등 궁합 맞는 샴페인을 차례로 선보인 디너는 미식 여행의 '끝판왕'이라 할 만했다. 끼니마다 눈과 허를 즐겁게 하는 음식과 샴페인, 그리고 역동적인 행사로 가득한 클리코의 여정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치게는 하지 않는 묘한 구석이 있다. 상쾌하고 풍요롭지만 절대 넘치지 않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실 틈 없이 돌아가지만 강요하거나 보채지는 않는 '편안한 럭셔리리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할까. '샴페인의 미학'을 터득한 데서 더 나아가 '오감 만족의 대가'라 칭하고 싶다. 에디터 **고성연**(호주 스레드보 취재)

1 '클리코 인 더 스노우' 행사의 공식 오프닝 파티가 열린 스레드보 빌리지 덴만 호텔의 파티장 내부. 이 공간은 뵈브 클리코 특유의 오렌지빛이 감도는 선명한 노랑 일색으로 맵시 있게 단장돼 파티의 흥을 한껏 돋우었다. 2 클리코 여정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클리코 인 더 스노우 피크닉'은 눈밭에서 샴페인과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3 새하얀 설원 위에서 신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한 쌍의 남녀 게스트. 스키장 언덕에서 샴페인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 넘쳐난 '클리코 축제' 기간에는 뵈브 클리코 VIP 고객들을 위해 디자인된 눈에 띄는 패딩 자켓을 걸친 남녀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절로 쏠렸다. 4 검은 차체에 '클리코 옐로우' 색으로 글씨를 새긴 행사 전용 차량.



## 뵈브 클리코 시즌

뵈브 클리코만의 스타일로 재해석된 이벤트를 통칭한, 상류 사회의 스포츠인 풀로 경기와 함께하는 뵈브 클리코 풀로 클래식.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감각적인 파티로 긴이 수영장과 게임 존 등이 구비된 탁 트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뵈브 클리코 옐로우 썸머,' 할리윈 시즌의 프로모션 행사로 박쥐, 유령과 같은 일러스트로 장식된 옐로 레이블을 앞세운 세트 메뉴가 제공되는 '뵈브 클리코 옐로우'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옐로우 서머와 옐로우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이스트에서 시작된 '클리코 인 더 스노우'는 겨울 행사로 빠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중 인기 행사인 '오프 피스트' 파티와 '스노우 피크닉' 표 구매는 [www.moshix.com.au](http://www.moshix.com.au)에서 가능하다.

TIP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8K 화이트 골드가 흑진주를 감싸고 있는 독특한 형상의 네크리스 5백10만원대, 옷핀 모티브 펜던트에 남양진주를 포인트로 세팅해 유니크하게 완성한 롱 네크리스 2백만원대, 작은 조약돌 형태의 실버 큐브와 반짝이는 블랙 스피넬을 비즈 형식으로 레이어드한 네크리스 2백30만원대, 블랙 피라미드에 아코야 진주를 세팅해 아이러니한 느낌을 주는 실버 체인 네크리스 1백20만원대, 독수리가 흑진주를 품고 비상하는 듯한 18K 화이트 골드 롱 네크리스 4백80만원대, 철조망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의 실버 소재에 아코야 흑진주를 세팅한 포인트 링 80만원대, 와일드한 철조망의 모습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실버 네크리스, 네크리스 연결 고리 끝에 진주를 세팅해 반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1백70만원대, 마치 거품처럼 크기가 다른 아코야 흑진주를 세팅한 이어링 1백30만원대, 2개의 실버 피라미드에 부분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인트 링 1백10만원대, 모두 **미하라야스히로 by 타사키**. 문의 02-310-1854 에디터 배미진



# Dark Angel

80년대 락스타에게 영감을 받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은 주얼리가 탄생했다. 최상급 퀄리티의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가 디자이너 미하라야스히로와 조우해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유니섹스 주얼리를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 수트에는 클래식 구두가 정석이다

“그 사람이 스타일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고 싶다면 구두를 보라”라는 영국의 복식 평론가 조지 플레이저의 말처럼 구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품위, 스타일에 대한 안목을 보여주는 아이템이다. 특히 중요한 협상이나 계약, 비즈니스 미팅에는 심플하고 품격이 느껴지는 디자인의 정장 구두를 선택해야 깔끔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남성 클래식 구두는 크게 옥스퍼드(oxford)와 슬립온(slip-on)으로 나뉜다. 옥스퍼드는 끈이 달린 모든 구두를 지칭하는데, 수트에는 반드시 옥스퍼드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신사복 매너 항목이 있듯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식한 스타일이다. 옥스퍼드는 세부적으로 플레인 토(plain toe), 스트레이트 팁(straight tip), 윙 팁(wing t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플레인 토는 말 그대로 구두코에 아무 장식도 없는 디자인으로 가장 전통적인 느낌을 주고, 스트레이트 팁은 구두코에 구멍이 뚫려 있는 장식과 스티치가 고루 둘러져 있는 구두로 단순하고 실용 나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정장 구두 중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깔끔하고 고결한 인상을 풍겨 가장 활용도가 높고, 공식적인 행사나 협상에서 품위를 높여준다. 윙 팁은 구두코에 새의 날개를 연상케 하는 구멍 장식이 있는 슈즈로 정장 수트는 물론 캐주얼한 재킷에도 모두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슬립온은 끈이 없고 구두의 앞쪽 가죽이 짧은 구두를 총칭하며 그중에는 몽크 스트랩(monk strap)과 로퍼(loafer)가 있다. 몽크 스트랩은 유럽의 수도승(몽크)이 신었던 구두에서 유래된 것으로, 갑피 부분의 버클과 벨트가 포인트다. 스트랩이 2개 붙은 더블 몽크 디자인도 있으며 끈 없는 구두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트에 매치할 수 있는 포멀한 모델이다. 클래식 로퍼는 캐주얼한 느낌으로 정통 수트에는 잘 매치하지 않지만 세미 정장과 같은 편안한 비즈니스 룩에는 스타일리시하게 매치할 수 있다. 구두 뒷부분에 장식 술이 달려 젊은 느낌을 주는 태슬 로퍼와 중앙에 가웃밥을 넣은 일자 밴드 모양의 가죽 장식을 갑피에 덧붙인 페니로퍼가 클래식 로퍼로 꼽힌다.

### 질 좋은 가죽의 위력

좋은 소재, 깔끔한 마무리는 고급 구두의 기본 조건이다. 고급 소재로는 양가죽과 소가죽을 주로 사용하는데, 표면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광택이 나며 잔주름이나 모공이 균일할수록 하이 퀄리티의 제품이다. 감각적이고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남성들 사이에선 악어·타조·뱀가죽 등 이그조틱 레더도 인기. 천연 가죽이면서 안과 밖의 색이 동일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비스듬히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처리되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구두코와 밑창이 깔끔하게 연결됐는지, 내피가 매끈하게 접착됐는지, 굽의 형태와 높이가 안정적 인지도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이다.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시선으로 차례대로) 송이자기족 소재의 브라운 컬러 윙 팁 슈즈 90만원대 **구찌**, 경쾌한 스트라이프 패턴 양말 1만5천원 **니탄**, 커팅 기법이 멋진 도미뱀가죽 소재의 슬립온 슈즈 1백28만원 **파치오티**, 머스터드 컬러 양말 1만2천원 **니탄**, 파플 컬러의 페이턴트 소재 페니로퍼 83만원 **폴 스미스**, 그린 컬러 스트라이프 양말 5만원 **폴 스미스**, 네이비 컬러가 돋보이는 플레인 토 슈즈 2백89만원 **벨루티**, 유니크한 도트 패턴의 양말 5만원 **폴 스미스**, 스트랩 장식이 클래식한 더블 몽크 스트랩 슈즈 1백76만원 **랄프로렌 퍼플 레이블**, 기하학적 패턴의 조화가 포인트인 양말 5만원 **폴 스미스**, 최고급 송이자기족 소재를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캣 슈즈 3백98만원 **키튼**, 클래식한 차를 컬러 양말 5만원 **브리오니**, 미니멀한 디자인의 스웨이드 소재 플레인 토 슈즈 59만원 **프라다**, 레드와 네이비 컬러가 조화를 이룬 양말 5만원 **폴 스미스**, 젊은 감성이 엿보이는 솔 장식이 포인트인 태슬 로퍼 77만원 **토즈**, 오렌지 컬러 양말 1만2천원 **니탄**.

**파치오티** 02-545-8757 **구찌** 02-516-1411 **키튼** 02-6905-3787 **랄프로렌** 02-545-8200 **벨루티** 02-3446-1895 **토즈** 02-3438-6008 **프라다** 02-3442-1830 **브리오니** 02-6905-3760 **니탄** 02-737-2885 **폴 스미스** 02-3447-0278

# Dandy Classics

정장 구두는 수트를 돋보이게 하고 남자의 옷차림을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품질 좋고 디자인이 클래식한 제품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 Renovation or Innovation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을 위해서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소개한다. 오랜 시간의 역사와 감동을 품고 재탄생한 재건축물들은 여기에 미래 지향적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재건축 프로젝트,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레노베이션

이제는 쓸모 없어진 건축물이 수리를 통해 100% 새롭게 변신한 세계의 랜드마크들을 의지까지 담고 있어 더욱 인상적이다. 도시의 일상적인 구태연함을 깨며 건축물 세계 여행을 떠나보자.



## 뉴욕의 공중 공원, 하이 라인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이들이라면 모두 동감할 것이다. 과거 지은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없었던 런던과 파리는 그토록 아름답지 않을 것이란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 지은 건축물은 물론 매력적이다. 하지만 역사가 없는 건축물은 감동이 없다. "건축가의 임무는 외관을 스케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건축가 헨드릭 페트루스 베를라헤(Hendrik Petrus Berlage)의 말처럼 레노베이션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난 건축물들을 소개한다. 먼저 미국의 문화 도시, 뉴욕으로 가보자. 얼마 전 유명 미술가 제프 쿤스가 1943년에 만든 중기 71번차에서 영감을 얻은 신작 '트레인을 수직으로 공중에 매달 예정'이라고 해서 화제를 모은 곳이 바로 하이 라인이다. 2백84억원이나 한다는 제프 쿤스의 신작도 물론 볼 만하겠지만 더욱 신기 한 것이 하이 라인(High Line)의 존재 자체이다. 1980년부터 줄곧 버려져 있던 뉴욕시의 공중 철도를 도시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2002년 조경 건축가 제임스 코너가 디자인을 맡아 2011년에 완공된 하이 라인은 이름 그대로 공중에 높이 떠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공원은 뉴욕에서 가장 핫하기로 소문난 미트 패킹 지역의 갠스부트 거리에서부터 34번가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휠체어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된다.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공중의 철길에 이렇게 신비롭게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www.thehighline.org). 미술 애호가라면 P.S.1 현대미술센터와 노구치미술관도 놓칠 수 없다. 뉴욕 쿤스의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P.S.1 현대미술센터는 폐교한 공립 초등학교 건물을 보수해서 1971년 미술관으로 거듭났다. 폐교된 학교명인 '퍼블릭 스쿨 넘버 원(Public School No.1)'을 따서 이름 지었다. 현대미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뉴욕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의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래 학교였다는 건축물의 용도와 유연하게 맞아떨어지게 스타보다는 신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교의 교실과 복도의 구조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 흥미롭다.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의 이시무 노구치 미술관(The Noguchi Museum)은 미술가 이시무 노구치가 1974년 자신의 스튜디오 맞은편에 있던 인쇄 공장과 주유소를 사들이면서 미술관으로 바뀐 곳이다. 주로 일본계 미국인 조각가 이시무 노구치의 작품을 전시·연구한다. 마당 넓은 공장을 개조한 운치 있는 곳기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들를 만한 명소이다.

## 프랑스 장레식장의 기적

여기까지만 들어도 건축물의 변신이 깜짝 놀랄 지경인데, 프랑스에서도 그야말로 기적초풍할 정도로 신기한 레노베이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르 샹트르르(Le 104)는 파리 북동쪽에 위치한 새로운 예술 공간인데, 원래는 시립 장레식장이었다. 지금은 화이트 칼라가 고풍스러운 아름다운 예술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어쩐지 밤에는 으스스할 것 같다. 더군다나 이제는 2백 명의 아티스트가 거주하며 작업을 하는 곳이라니 더욱 신기하지 않을 수 없다. 3만9000㎡의 르 샹트르르 주변에 어린아동, 가족을 위한 거주 공간, 상점과 레스토랑 등 미술가를 위한 다채로운 편의 시설뿐 아니라 원래 이 동네에 살면서 장레식에 중시하던 근면한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확충했다. 마을 사람들로 르 샹트르르에 모여 자녀를 위한 그림 교실, 인지를 위한 프랑스어 교실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완벽한 레노베이션이다. 하나의 건물 덕분에 한 도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레노베이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프랑스에서는 수영장이 미술관이 된다. 프랑스의 작은 도시, 릴의 리베 수영장은 1932년 완공되어 인기를 누렸으나 1985년에 문을 닫았다. 이후 레노베이션을 거쳐 루베 수영장 미술관(La Piscine-Roubaix)으로 재탄생된 이곳은 프랑스 고유의 미술 양식인 아르데코(장식 예술) 스타일을 접목해 모두를 감탄하게 한다. 미술 작품과 묘한 조화를 이루는 수영장이 관람하는 재미를 극대화해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다.

신인 노구치 미술관, 현대미술센터, P.S.1 현대미술센터, 프랑스 장레식장, 캐나다 채석장의 기적, 부차트 기든, 스위스 취리히와 독일 베를린의 열정적 풍경



## 환경 친화적 건축물의 매력

기존의 건축물을 수리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요즘은 폐건축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예도 늘고 있다. 버려지는 재료들을 이용해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박물관으로 유명하다.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는 1853년 설립되었으나 1906년에 지진이 일어나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 후 1989년에 지진이 다시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관 건물이 필요하자 자연을 탐험하고 설명하고 보호한다는 사명을 직접 실천해 재활용 콘크리트와 버려진 철, 나무로 박물관을 새롭게 만들었다. 건물의 단열은 100% 폐차처리 마그네슘, 일본 에.메이선에서 나온 스티폼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아름답다면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기쁨을 항상사기며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기게 된다.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효과는 더욱 강렬할 것이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여행의 묘미가 될 것이다.

## 스위스 취리히와 독일 베를린의 열정적 풍경

극장과 콘서트 홀 등 문화 시설이 있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취리히 서부 지역의 문화 시설은 과거 산업 시대의 조선소와 제지 공장, 주조 공장을 개조해 만든 것이다. 그중 주조 공장을 개조한 레스토랑 '그누세리(Gnüsserei)'가 유명하며, 시프한 미식 요리를 선보인 다(www.gnuesserei.ch). 조선소를 개조한 슈피바우(Schiffbau)의 공연장 '무드스(Moods)'는 재즈, 락, 이방가드 뮤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www.moods.ch). 재활용 천과 부품을 이용해 세계 유일의 디자인 가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프라이탁(Freitag)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있다. 1971년 녹스 컨테이너로 만든 건물 제일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다. 세계 최대의 재활용 가방 셀렉션이 재활용 건축물에서 판매되고 있다니 재미있는 우연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12월에는 이 곳 서부 지역에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프라이탁 타워(Prime Tower)가 오픈했다. 126m, 총 36층의 프라이탁 타워는 35층에는 클라우즈(Clouds)라는 미식 레스토랑과 비스트로 바, 라운지, 옥외 테라스가 있다(www.swiss-prime-site.ch). 가장 낮은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장 획기적인 첨단 건축물이 생긴 셈이다. 최근 성세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위스의 또 다른 발전적 면모를 짐작할 수 있는 유쾌한 레노베이션이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독일에도 레노베이션 선지가 여러 곳 있다. 세계 최대 탄전 지대였던 루르 공업 단지는 서편된 현대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100m 길이의 가스 탱크는 다이버 잠수 훈련장으로 변신했고, 제철소는 콘서트 홀이 되었다. 예전 줄타기 광산의 보일러 히어는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으로 다시 디자인했다. 베를린에도 새로운 공간으로 바뀐 건축물들이 많다. 베를린의 레노베이션 건축물들은 나치의 활동 공간으로도 쓰였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울스타인 가리의 우파 파브릭(UFA Fabrik)은 나치의 선전 영화를 만드는 영화 스튜디오였던 과거를 지우고 젊은 예술가들이 공연하는 생체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다. 베를린 도심에 위치한 티클라스(Tachless)는 1907년 백화점으로 완공되었으나 나치 친위대의 활동에 이용다가 한때는 아티스트들의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다. 1887년 맥주 양조장으로 만들어진 쿨투어 브라우어리(Kultur Brauerei)는 영화관과 카페, 음악 학원 및 댄스 클럽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www.kulturbrauerei-berlin.de). **HN**

글 이소영 (서울, 그 카페 줄타기, (사진 미술에 중독되다)의 저자)

**카덜트풍의 경쾌한 플레이 룸**

벽에 걸린 제품은 캔버스와 천 나무로 이루어진 픽처 일루전. 80x80cm 10만원, 지미 헨드릭스가 프린트된 핑크 지미 암체어 1백52만원 모두 독일 회사 **카레(Kare)**, 사이드 테이블 위의 레진 소재 체리 장식 42만원 **켄리시테이스**, 그 옆에 놓인 권총 모양 자기 꽃병은 2만원 **카레**, 방창자가 독특한 스톤 나뭇잎 모양 사이드 테이블 39만3천원 **카르텔**, 바닥에 걸린 아이보리의 극세사 러그, 150x150cm, 5만5천원 **환안자 페트**, 안쪽에 놓인 폭 레전드 쿠션, 45x45cm, 13만원 **카레**, 바닥에 놓인 레드 컬러의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36만8천원 **스니 플레이스테이션**, HD 콘텐트를 최고의 해상도(1080p)로 구현하는 최신 기술을 탑재했다. 삼각형의 불루와 그린 페달로 테이블 가격 미정 **카시나**, 피안 테이블 위의 메달 베어브릭 24만8천원 **킨샤(로복)**, 오른쪽 제품은 파격적인 디자인에 강력한 시몬드가 담긴 베오 랩 9, 1 세트에 1천8백40만원 **방앤음음음**, TV는 **방앤음음음**의 첫 LED TV 베오 비전 7-55, VAT 포함 2천8백80만원.

**남성적인 멋이 물씬 풍기는 밀리터리 바**

중앙에 서 있는 모던한 디자인의 라이트 이얼스 조명 1백20만원 **헬즈**, 한스 산드그렌 아름센(Hans Sandgren Jacobsen) 작품, 조명 옆에 있는 의자는 가죽과 스틸로 이루어진 장 푸르베의 시트(Cie) 암체어 7백42만원 **비트라**, 그 옆 제품은 선인장 캐버를 한 규형 스톤이저 푸 레스토랑, 1백20만원 **헬즈**, 캐버는 세트도 가능하다. 왼쪽의 소가죽과 스틸로 만든 블레이크 의자는 이탈리아 아이르노바(Airnova) 제품으로 가격 미정 **르스메**, 스텐드 옆 작은 탁자 위의 촛대 18만원 **루밍**, 사이드 테이블은 37만원 **카레**, 메인 테이블은 콜로니얼풍의 커피 테이블 바로, 사이즈는 120x75x37cm, 물푸레나무로 만들었으며 무게는 61kg이다, 2백15만원 **카레**, 아래쪽의 그린색 불은 덴마크산으로, 모르게 라센(Morgen Lassen)이 디자인한 제품, 23x23cm, 42만원 **이노메사**, 테이블 위쪽의 와인 잔 가격 미정 **이르마니 까사**, 그린색 자그 6만8천원 **루밍**, 오른쪽의 빈티지 플라크 라디오 18만3천원 **카시아이빙우스**, 누워 있는 살바 꽃병 2만원 **카레**, (테이블 아래쪽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스틸 소재 물병 4만2천원 **루밍**, 코냑 글라스 9만원 **이노메사**, 유리잔 2개 가격 미정 **르스메**, 일지형의 상체인 잔 7만2천원, 넓은 와인 잔 4만5천원, 로켓 모양 세라믹 골드 오브제 72만원 모두 **디자인AT**, 녹색 사각 트레이 가격 미정 **이르마니 까사**.

# Space Matters

드러나지 않는 남성들의 로망. 여기, 그들을 위한 4개의 방이 있다. 때론 어린아이처럼, 때론 아카데미한 학자처럼, 또 때론 냉철한 스페셜리스트처럼, 오롯이 혼자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소유하라. photographed by **lim tae joon**

**자연의 와일드한 매력이 느껴지는 서재**

중양의 사슴뿔 오브제 가격 미정 **바바리아**, 그 옆의 아프리카의 흑단을 손으로 깎아서 만든 우드 볼 가격 미정, 칠을 부사시켜 만든 사이드 스톤 가격 미정, 테이블 아래에 놓인 빛깔이 아름다운 와인잔들 가격 미정 모두 **큐빅미터**. 여행 기념 디자인의 사랑장은 프랑스 아르투크피(Artcopy) 제품으로 가격 미정 **르쏘에**, 가장 디자인 사랑장 위에 놓인 풀 장식 가격 미정 **막시리빙**, 자두나무를 원형으로 깎아 만들어 나뭇결이 살아 있는 스톤 가격 미정 **큐빅미터**, 그 위의 세라믹 블랙 커피잔은 미국의 디자이너 마이클 아람의 작품으로 6만9천원, 바다에 걸린 여우털 러그 48만4천원 모두 **디자인AT**, 긴 원목 책상, 160X76X76cm, 가격 미정 **이튼알렌**, 가죽 암체어는 스페인의 바로 빌렌타 제품, 가격 미정 **르쏘에**, 송차가죽 쿠션 가격 미정 **막시리빙**, 책상 위의 자규본 62만원 **선학구디**, (책상 위 제품들) 나뭇가지 모양의 우드 트레이 35만원 **선학구디**, 모넬라사의 컵 홀더 3만9천원 **엘스토어**, 가죽 필통 가격 미정 **르쏘에**, 유리 인의 볼 오브제 15만원 **안도카라지**, 이윤희 작가의 해골 오브제 15만원 **엘스토어**, 깃털이 꽂혀있는 유리병 가격 미정, 그 옆의 책 모형 장식 8만원 모두 **선학구디**, 모넬라사의 나무 접시 4만9천원 **엘스토어**, 접시 위의 돌보기 12만원 **선학구디**, 바다에 놓인 엔틱 액자 가격 미정 **바바리아**.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시크한 거실**

왼쪽에 서 있는 플로어 스탠드 가격 미정 **막시리빙**, 벽에 걸린 장식 미러 레트로스퀘어 36만원 **카레**, 베이지 컬러의 쿠베르나 소파 1천5백70만원 **밀라노디자인발러지**, 소파 위의 프랑시스 쿠션 11만7천원 **다브**, 그 옆의 노트북 컴퓨터 바이오 Z 시리즈 3백54만9천원, 바이오 15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다. **소니**, 테이블 위의 스틸&알루미늄 소재 체스 판 40만원 **카레**, 그 옆은 필립스의 이온 배터리 내장 포터블 스피커로 34만9천원, 골드 티 컵 가격 미정 **아르미니 까사**, 슬림한 디자인의 테이블 1백만원대, 오른쪽의 한스 올센(Hans Olsen)의 양철판 가격 미정 모두 **모벨랩**, 의자 위의 그래픽 프린트 쿠션 11만7천원, 리넨 소재 블랭킷 14만9천원 **다브**, 소파 앞의 우드 노트 슬리퍼 가격 미정 **안연**, 바다의 오르공간 바닥재는 비안코 아르티코(Bianco Artico) 로 가격 별도 문의, **하늘** 제품.

스타일리스트 최지아 어시스턴트 김미금, 양선영, 임상아



언어의 미술사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이국적인 파라다이스

# Key West

카리브 해를 따라 총총히 연결된 42개의 섬, 그 끝자락에 자리한 그림 같은 섬 키웨스트.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대문호의 반열에 올려놓은 키웨스트는 카리브 해를 사이에 두고 쿠바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일조량이 풍부해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낭만적인 섬, 키웨스트는 성조기가 휘날리는 미국 땅이지만 쿠바의 향취가 더 진하게 느껴진다. 언어의 미술사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그 신비롭고 오묘한 파라다이스 키웨스트(Key West)를 향해 항해를 시작해보자.

최고급 시가 불랙본리를 유별나게 선호했던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를 당대 최고 소설가이자 뉴스 메이커로 만든 키웨스트는 작은 섬이었다.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면서 섬으로서 기능은 사라져버렸지만 서쪽 끝 섬이란 지명의 의미만큼이나 키웨스트 풍경은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롭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키웨스트는 오래전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명소였다. 바다 사나이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했던 라이트 하우스,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오두본 하우스, 그리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모래사장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포트 제커리 테일러 국립공원과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올드 시티 지역 등.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흥미로운 명소가 즐비한 키웨스트지만 방문객이라면 떠나없이 먼저 걸음을 재촉하는 곳이 있다. 바로 라이트 하우스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헤밍웨이 하우스다. 입장료를 지불하고 아담한 출입문을 통과하면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과 다르게 수영장을 갖춘 제법 커다란 저택이 방문객을 반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향취가 그대로 배어 있는 그의 집은 2층 목조 주택을 중심으로 소박한 작업 공간과 책자, 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잘 가꾼 정원과 수영장 앞에 자리한, 그가 생활했던 주 건물은 손님을 맞던 집전실과 침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2층 목조건물이다.

헤밍웨이 하우스의 아래층은 응접실과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다. 키웨스트에 머무는 동안 헤밍웨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본 건물로 들어서면 방문객을 맞는 것은 벽면을 장식한 커다란 그림이다. 불멸의 명작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과 상어가 그려진 작품으로, 그가 얼마나 <노인과 바다>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변해준다. 커다란 그림을 중심으로 손님을 맞거나 휴식을 취할 때 이용하던 소파와 자그마한 탁자 등으로 이루어진 응접실은 호화롭지는 않지만 주인인의 정성이 느껴질 정도로 이국적이게 꾸며져 있다. 흥미를 자극할 만한 물건들이 가득한 응접실에서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색 바랜 사진 한 장이다. 헤밍웨이가 그 어떤 소장품보다 소중하게 아끼던 요트 파일러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그가 얼마나 낚시를 좋아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요트



1 항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키웨스트의 신비롭고 영동한 풍경을 배경으로 낚시를 즐기는 주민. 2 키웨스트를 항해하고 있는 범선. 키웨스트 해안에는 연중 수많은 방문객이 직접 타고 온 요트의 범선을 접할 수 있다. 3 키웨스트를 방문한 방문객이 자연광을 이용해 한옥한 가리를 둘러보는 풍경. 4 헤밍웨이 하우스 앞에 위치한 키웨스트의 상징, 옛 등대. 5 헤밍웨이가 자주 방문했던 키웨스트 카페.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과 관련한 이야기와 관련된 장소이기도 하다. 6 매일 이른 아침에 작업에 몰두했던 헤밍웨이의 작업실. 7 소박하고 평범한 헤밍웨이 하우스의 메인 건물. 그는 오랜 동안 이곳에서 거주했다. 8 각종 기념품과 장식품을 꾸민 헤밍웨이의 상점. 9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커다란 상어를 형상화한 카페의 장식물.



는 부호들이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커다란 요트도 등장했지만, 당시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파일러는 지금 기준으로 보아도 고급스러운 요트임에 틀림없다. 언어의 미술사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시간이 허락될 때면 어김없이 파일러를 타고 멀리 쿠바 지역까지 낚시를 하러 떠났다. 비록 키웨스트가 아닌 쿠바에서 창작했지만, 불멸의 명작 <노인과 바다>는 파일러가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키보따 2배는 커 보이는 물고기를 잡은 기념으로 찍은 사진은 그가 얼마나 바다를 사랑했는지 확인시켜준다. 응접실과 부엌을 지나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을 오르면 개인적인 공간이 나온다. 헤밍웨이를 대신해 침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고양이, 작지만 정겨움이 느껴지는 하얀 커튼으로 둘러 치친 욕실, 세월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나무 의자, 그리고 정원과 주변의 풍광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테라스로 구성된 침실은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낭만적인 삶을 살았는지 느끼게 해준다. 한편 침실 건너편에는 자그마한 서재가 있다. 평소 그가 즐겨 보던 책자와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서재에는 헤밍웨이가 키웨스트에서 생활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그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의 원본이 전시되어 그의 문학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이어지고 있다. 헤밍웨이의 일상적인 삶을 엿볼 수 있는 건물 옆에는 자그마한 작업실이 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곳으로 달려와 창작 활동을 했다. 커다란 책상과 자그마한 탁자, 서랍장 등으로 이루어진 아담한 작업실에서 그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킬리만자로의 눈> 등 주옥같은 명작을 창작해냈다. 당시 헤밍웨이가 사용했던 진한 세피아색 책상 위에는 그의 향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타이프라이터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갈 때 사용했던 항해 장비들이 놓여 있다. 헤밍웨이 하우스가 대문호의 체취와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장소라면 신작로를 따라 늘어진 카페와 해변에 인접한 올드 타운 지역은 키웨스트가 얼마나 흥미로운 고장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헤밍웨이 하우스에서 올드 타운으로 향하다 보면 헤밍웨이가 자주 찾던 카페와 레스토랑을 만날 수 있다. 언어의 미술사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키웨스트 카페는 하나같이 독특하다. 어떤 카페는 처음 건축될 당시의 모습과 운영 방식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새롭고 문을 연 카페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세련된 분위기가 돋보인다. 카페와 레스토랑가가 끝나는 저점에 키웨스트의 역사를 담고 있는 올드 타운이 터를 잡고 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인근의 섬들과 활발하게 상거래를 하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올드 타운은 타임머신을 타고 한 세기 전으로 돌아간 기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카리브 해를 따라 늘어난 고급 호텔과 멋진 상점이 즐비한 올드 타운을 상징하는 장소는, 옛날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수한 아바나 상점가이다. 여타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물게 성조기와 쿠바 국기가 나란히 걸린 상점가로 들어서면 쿠바산 고급 시가를 판매하는 상점을 비롯해 세월의 무게를 엿볼 수 있는 물건으로 가득하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품으로 가득한 상점가를 걸다 보면 수시로 지갑을 열게 된다. 바

닷가에 위치한 카페는 여유를 즐기기에 적합한 장소다. 그 외에도 키웨스트에는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휴식과 태초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제커리 테일러 지역 등 매력적인 장소가 즐비하다.

카리브 해를 두고 키웨스트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쿠바의 작은 어촌 코히마르(Cojimar)는 평생 고기 잡는 일에 종사한 노인의 집념과 내면을 담아낸 소설 <노인과 바다>의 무대로 잘 알려진 곳이다. 키웨스트만큼 유명세를 자랑하는 곳은 아니지만 코히마르에는 소설 속 내용을 고스란히 감지할 수 있는 바다와 카페 등이 자리하고 있다. 주인공 늑은 어부 산티아고와 그를 존경하던 소년 마놀린은 만날 수 없지만, 카리브 연안을 응시하고 있는 마을은 헤밍웨이 소설 속 내용과 꼭 같다. 성과 바다, 마을이 보이는 신작로에는 헤밍웨이가 수시로 찾아와 주민들과 행복담을 나누던 카페 라 테라스(La Terraza)가 있다. 어촌과 어울리지 않게 제법 규모를 갖춘 라 테라스는 온통 헤밍웨이와 그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에 관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헤밍웨이 마니아라면 달고 있었지만 그가 소설 <노인과 바다>를 창작할 생각을 갖게 된 곳은 키웨스트에 자리한 카페였다. 우연히 집념 있는 어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헤밍웨이는 키웨스트를 떠나 쿠바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아바나에서 생활하던 헤밍웨이는 수시로 작은 어촌 코히마르를 찾았다. 그리고 가난한 어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장소가 라 테라스이다. 이곳 카페에는 소설이 탄생될 당시 모습을 담아낸 풍경화와 소설 주인공인 산티아고와 헤밍웨이를 형상화한 작은 흉상,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집권자 카스트로와 헤밍웨이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간직한 42개의 섬을 지나 만나게 되는 키웨스트, 8년 동안 위대한 문호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섬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장소 외에도 매력적인 공간이 많다. 헤밍웨이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언급한 장엄한 방처럼 걸로 드러난 곳보다 드러나지 않은 정겨운 공간이 더 많은 키웨스트. 그곳에서 서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소설가와 시인으로 변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시 |** **시인 이형호**(세계 시문학) 저자

**Tip**  
1. **1인 1인** → LA(경유) →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마이애미 → 키웨스트는 국내 항공과 차량으로 이동 가능하나 장거리 장점은 작은 마을과 섬, 바다를 구경하려면 US 1번 국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은 1백000로 약 4시간 소요. **2인 1인** → 전세기/택시/물류업 연상사(이곳은 아메리칸 홈이론 명소를 만날 수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하우스(Ernest Hemingway House), 키웨스트 라이트하우스 박물관(Key West Lighthouse Museum) 등이 대표적인 명소. **3인 1인** → 유명 휴양지로, 흥미로운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20여 곳이나 있다. 스노클링, 카약, 스노스쿠버, 바나나 보트, 보트 크루즈를 취급하는 세버그 투어(Sebago Tours), 범선 크루즈 전문 투어인 아메리칸 투어(American Tours), 해리타지 허버 투어(Heritage Harbor Tours) 등이 있다. **4인 1인** → 키웨스트에는 쿠바, 멕시코, 중앙미 등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낭만적인 카페가 즐비해 누구나 원하는 음식을 즐기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40대 음식점을 이어온 조스 스톤 크랩 레스토랑(Joe's Stone Crab Restaurant)을 필두로 쿠바 전문 음식점인 비스 레스토랑(Bis Restaurant), 전통 미국 음식점을 즐길 수 있는 비스트로 245(Bistro 245) 외 다양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다. **5인 1인** → 국제적인 체인 호텔, 호텔부터 모텔과 장기 체류자들이 이용하는 호텔이 하우스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6인 1인** → 키웨스트에는 많은 상점이 있지만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작은 상점이 주류를 이룬다. 대표적인 상점으로는 쿠바 그림과 예술품,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쿠바비(Cuba! Cuba!)와 고급 주얼리, 액세서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체인점 카바나(Kabana)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즐비하다. **www.see-keywest.com**

# Jumping your Skin

흐트러진 얼굴 라인, 탄력 없는 피부, 눈에 띄는 잔주름은 비단 여성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남자들이 선호하는 가볍고 촉촉한 질감에 즉각적인 효과와 지속력까지 갖춘, 오직 남성만을 위한 안티에이징 화장품들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woo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세이도 맨 액티브 에너자이징 컨센트레이트 피부에 즉각적으로 탄력과 활력을 더해주는 안티에이징 에센스. 과도한 피지를 컨트롤해 번들거림과 칙칙함을 개선하고 피부 처짐과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젤 타입으로 끈적이지 않고 비르는 즉시 피부에 가볍고 시원하게 스며드는 것이 특징이다. 24시간 동안 촉촉함이 유지되어 피부가 건조해질 염려가 없다. 50ml 7만5천원. 문의 080-564-7700

클리닉 스킨 서플라이즈 포 맨 다크 스팟 코렉터 노화의 징후 중 하나인 다크스팟, 검버섯 등의 집티를 빠르게 개선하는 고기능성 에센스. 다섯 가지 브라이팅 성분으로 구성된 CL-302 콤플렉스가 트러블 자국, 기미, 잔티 등 보기 싫은 흔적을 효과적으로 지워주어 보다 균일하고 화사한 피부 톤을 되찾아준다. 또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 스킵렌을 더해 피부 표면으로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바꿔준다. 30ml 9만원. 문의 02-3440-2773

랩 시리즈 아라미스 맥스 LS 오버나이트 리뉴얼 세럼 피부 재생이 이루어지는 밤 시간 동안 피부에 집중 작용해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는 안티링클 세럼. 피부가 재생할 수 있는 개선 능력을 증진시켜 피부 손상을 케어하고, 턴오버 속도를 빠르게 해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로 바꿔준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블루베리, 토코페롤 아세테이트와 탄력을 높이는 식육즙 추출물,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는 스위트 아몬드 씨앗 추출물 등을 함유했다. 30ml 9만6천원. 문의 02-3440-2774

설화수 정안크림 정양당과 홍삼 추출물을 함유해 음연, 음주, 각종 스트레스로 가칠어진 피부를 생기 있고 탄력 있게 되돌려주는 에너자이징 크림. 은은한 한방 향이 부담스럽지 않으며 끈적하고 밀착력 좋은 텍스처가 피부에 탄력 있게 발리고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생체 친화성 캡슐 기술을 적용해 효소 처리 홍삼 사포닌 성분이 피부에 빠르게 침투,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40ml 10만5천원. 문의 080-023-5454

비오템 올드 포스 수프림 크림 주름, 탄력은 물론 건조함, 칙칙함 등 피부의 모든 노화 현상을 케어하는 토털 안티에이징 크림. 피부 속까지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생나무 추출물과 피부조직의 재건을 돕는 프록살린 성분이 결합해 세월의 흔적을 빠르게 개선시킨다. 50ml 6만2천원. 문의 080-022-3332

다올 올드 더모 시스템 에이지 컨트롤 퍼밍 케어 피부 탄력과 과도한 피지 분비를 동시에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세럼. 뛰어난 퍼밍 효과를 자랑하는 베타인, 티손과 인산, 비타민 E가 결합된 리텐솔 복합체가 피부 탄력을 증진시켜 얼굴의 윤곽선을 또렷하게 잡아준다. 또 베타 이연 성분이 과잉 피지를 흡수해 보습보송하고 매끈한 피부로 바꿔준다. 50ml 8만원. 문의 02-3438-9537

클리닉스 안티 퍼피드 아이 세럼 칙칙한 눈가의 다크서클과 부기를 완화하는 오일 프리 아이 세럼. 징크 빌로바 추출물이 눈가의 부기와 칙칙함을 최소화하고 길링가, 진생 추출물이 예민하고 피로한 눈가를 편안하게 진정시킨다. 더불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오트 슈거 성분이 피부에 탄력을 더해 노화의 첫 징후인 잔주름을 예방한다. 20ml 4만7천원. 문의 080-542-9052

랑콤 제니피코 맨 HD 세럼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인 젊음의 활성 에센스, 제니피코의 테크놀로지와 성분을 그대로 담은 남성용 안티에이징 세럼. 젊고 건강한 피부 세포로 되돌리는 활성 엑티베이터 기술과 성분을 적용해 단 7일만 사용해도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느낄 수 있다. 잦은 면도로 염증이 쉽게 생기는 남성 피부를 위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타이거 허브 성분을 담았다. 50ml 7만8천원. 문의 080-022-3332 에디터 권유진



폴 스미스

**폴 스미스 존 롭 컬**

**래버레이션 슈즈** 폴 스미스는 존 롭(John Lobb)과 콜라보레이션해 스페셜 에디션 슈즈를 선보인다. 편칭 디테일이 돋보이는 옥스퍼드 슈즈 웨스트본(Westbourne)과 컬러풀한 캐시미어 스웨이드 소재의 윌러비(Willoughby), 가볍고 유연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루카(Lucca)까지 존 롭의 대표적인 3가지 디자인에 폴 스미스의 유머와 재치를 결합했다. 국내에서는 도산공원 플래그십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6957-5815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푸시 포지티브** 캘빈 클라인에서 가을을 맞아 '푸시 포지티브(Push Positive)'를 선보인다. 혁신적인 플라스틱 와이어 기술로 볼륨을 극대화하며, 가볍고 유연한 와이어가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블랙, 누드 등 솔리드 컬러를 비롯해 현란한 프린트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218-5255

**토즈 No\_Code 2012 F/W 캡슐 컬렉션** 토즈에서 'No\_Code 2012 F/W'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제퍼슨 핵(Jefferson Hack)에게 영감을 받은 이번 시즌에는 풍부한 컬러와 편안하고 세련된 도시 분위기를 담아 완성했다. 문의 02-3448-8198

**제나스포르츠 어벤 카무플라주 컬렉션** 제나스포르츠에서 스포츠웨어 '어벤 카무플라주'를 출시한다. 밀리터리 콘셉트를 도시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컬렉션은 내피 다운 재킷을 분리할 수 있는 디테일을 롱 피카를 비롯해 다크 그린 솔리드 컬러와 카무플라주 패턴을 프린트한 리버셔블 라이트 셀 재킷으로 선보인다. 제나 창당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6004-0136

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2016-5325

**니나리치 2012 F/W 광고 촬영 스토리** 니나리치가 2012 F/W 광고 캠페인을 완성했다. 파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광고 촬영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욱준의 지휘 아래 떠오르는 포토그래퍼 빅터 드마셸리(Victor Demarchellier)와 새로운 니나리치 맨으로 발탁된 모델 더글러스(Douglas)와 그렉(Greg)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문의 070-7130-2949

**파치오티 2012 남성 F/W 컬렉션** 파치오티의 2012 F/W 컬렉션은 1980년대에서 영감을 얻어 자유롭고 여유로운 남성성을 표현했다. 체스트넛, 버건디, 그린 등 가을을 연상시키는 깊고 풍부한 컬러에 글로시한 피니시를 수직업으로 완성했으며, 군더더기 없는 매끈한 라인이 돋보인다. 문의 02-545-8757

**랄프로렌 2013 S/S 남성 프레젠테이션** 랄프로렌이 뉴욕에서 2013 S/S 남성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CK 언더웨어

토즈

제나스포르츠

ZegnaSport

# SHOWROOM



니나리치

파치오티

FASHION

랄프로렌

MCM

구찌

LIVING

**콘래드 서울 호텔** 콘래드 서울 호텔의 피트니스 클럽 '펄스에이트(Pulse8)'가 회원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강남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전문적인 영양 평가와 체력 측정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회원 7개인의 건강을 바탕으로 한 식생활 평가를 비롯해 운동 처방을 내리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픈 예정인 11월 1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02-6137-7060

**모벨랩 애뉴얼 세일** 모벨랩에서는 창립 기념달인 매년 10월 애뉴얼 세일을 진행한다. 책상, 의자, 다인 테이블, 사이드 보드 등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한 가구를 최대 40% 할인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서울 성북동 소문에서 진행하며, 기간은 10월 5일부터 28일까지다. 문의 02-3676-1000



콘래드 서울 호텔



티파니

타사키

론진

반클리프 아펠

## JEWEL

**티파니 옐로 다이아몬드** 티파니에서 옐로 다이아몬드를 새롭게 소개한다. 1만 개의 다이아몬드 중 1개만 발견될 정도로 희귀한 옐로 다이아몬드는 옐로 골드나 플래티넘 등 서로 다른 소재와 함께 믹스 매치하면 세련된 스타일링이 완성된다. 19세기 가든의 정문에서 영감을 받은 플라워 디자인으로 오벌 컷, 쿠션 컷의 중앙 스톤을 컬러리스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감싸고 있다. 문의 02-547-9488

**타사키 밸런스 네크리스** 타사키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아이템 '밸런스 네크리스'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기존의 11mm 사이즈보다 작은 8.5mm 아코야 진주를 사용해 어떤 룩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으며, 동양인의 피부 톤에 잘 어울리도록 특별히 제작한 시쿠라 골드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새로워진 밸런스 네크리스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론진 쌍피미에 컬렉션** 론진에서 탄생 1백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시한 '쌍피미에 컬렉션'의 골드 제품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1940년대에서 영감을 받은 18K 골드 케이스에 ETA에서 론진만을 위해 제작한 컬럼 휠 무브먼트 L688.2를 장착했으며, 크로노그래프 모델에는 3시 방향에 30분 카운터, 6시 방향에 12시간 카운터가 표시되어 있다. 블랙 앨라게이터 스트랩으로 고급스럽게 완성했다. 문의 02-3149-9532

**반클리프 아펠 2012 피에르 아펠 워치** 반클리프 아펠에서 1949년 처음 선보인 '피에르 아펠 워치(The Pierre Arpels Watch)'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롭게 선보인다. 오리지널 모델과 같이 다이얼은 화이트 레커드로 마무리하고 로마숫자를 인덱스로 장식했으며, 다이얼 중앙에는 남성 드레스 셔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벌집 모양의 패턴으로 수놓아 고급스럽게 완성했다. 수작업으로 완성한 블랙 컬러의 페이턴트 앨라게이터 소재를 사용했다. 문의 02-3440-5660

**비오렘 옴므 아쿠아파워 XL 사이즈 리미티드 에디션** 비오렘 옴므에서 '아쿠아파워 XL 사이즈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이는 기존 사이즈보다 25ml 커진 100ml 슈퍼 사이즈로, 푸석하고 건조한 남성의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산뜻한 워터-젤 텍스처는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끈적임이 남지 않으며, 피지 분비가 왕성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80-022-3332

**아모레퍼시픽 맨스튜디오 쿨링 모이스처라이징 바디 워시** 아모레퍼시픽의 그루밍 브랜드 맨스튜디오에서 남성 전용 바디 워시와 스크럽을 제안한다. 상쾌한 향이 특징인 '쿨링 바디 워시'와 진정·보습 효과가 뛰어난 '모이스처라이징 바디 워시' 2가지로 구성했으며, 입자가 미세한 '리프레시 바디워시 스크럽'은 묵은 각질을 제거해 피부를 산뜻하게 가꿔준다. 문의 02-3446-4058



비오렘 옴므